

2019

# 여성 기업가정신 생태계 리뷰

● 2019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여성 기업가정신 생태계 리뷰

※ 본 보고서는 기업가정신의 보급 및 확산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 학술연구와는 달리 시의성, 정책  
현안의 긴급성 등의 이유로 보고서 본문에서의 포괄적·개괄적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Contents

## I. 기업가정신 관점에서 본 한국의 여성 창업 현황 및 시사점

1. 여성 기업가정신과 창업	1
2. 여성 기업가정신 현황	5
3. 여성 창업 동향	9
4. 여성 창업생태계 현황	17
5. 창업 성공사례를 통해 본 여성 기업가정신	27
6. 여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 기회요인과 시사점	36
참고문헌	40

## II. 여성창업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1. 서론	44
2. 창업지원제도	48
1) 일반 창업지원제도	48
2) 여성창업지원제도	52
3. 조사결과 분석	56
1) 심층인터뷰	56
2) 여성기업 실태조사	59
3) 여성창업기업 실태조사	63
4. 한계점 및 개선방안	72
1) 한계점	72
2) 개선방안	74
참고문헌	77
부록	79



# I

## 기업가정신 관점에서 본 한국의 여성 창업 현황 및 시사점

김영환(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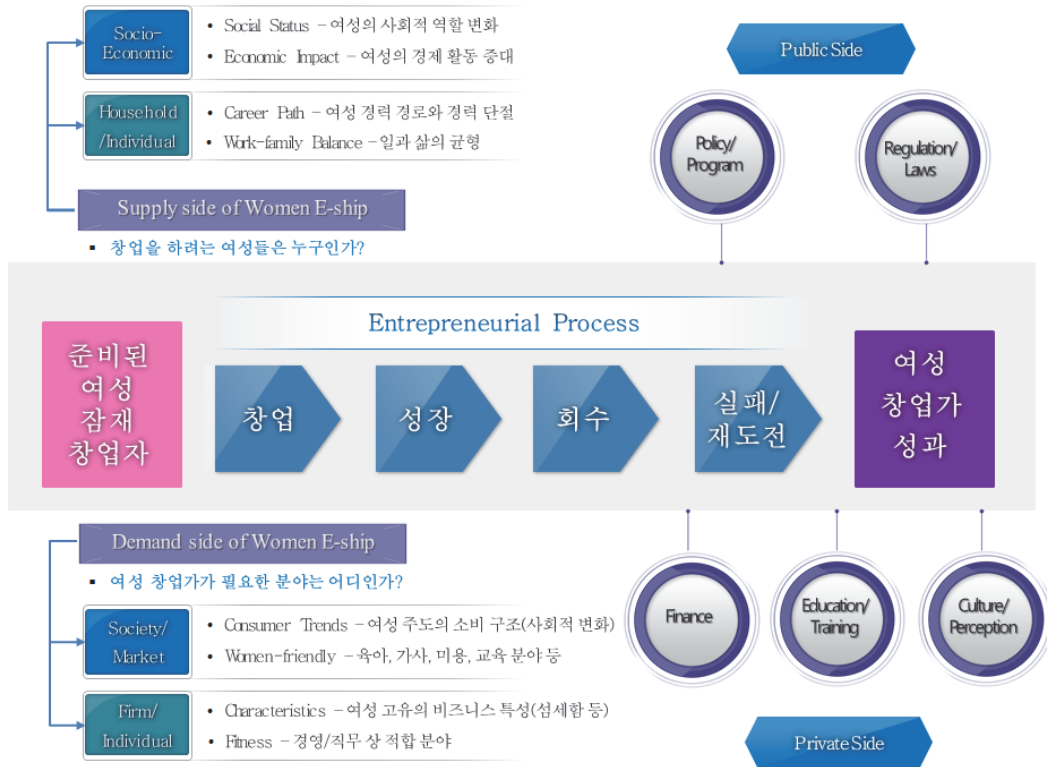
# 1. 여성 기업가정신과 창업

## ■ 여성 기업가정신의 개념

- 여성 기업가정신은 일반적인 기업가정신과 별도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내면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따른 여성 고유의 기업가정신의 특성 및 특징을 의미
  - 기업가정신이란 ‘한정된 자원 하에서 기회를 추구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배종태·차민석, 2009)’ 또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기술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의 기술적 예측과 기술혁신을 정교하게 결합하는 것(Schumpeter, 1934)’을 의미하므로 남녀 간에 본질적인 개념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Mayoux, 2001)
  -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 덕목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합리성, 적극성 등에 여성의 섬세함, 공감능력, 유연성 등의 창업 및 기업경영에서의 강점으로서 발휘될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이 더해져 여성 기업가정신을 형성
- 여성 기업가정신 역시 일반적인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김선우 외, 2016)
  - 경제발전과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 전통적인 성 역할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 다차원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여성의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및 창업 등 기업활동에 있어 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 여성 기업가정신이 남성 중심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핵심 원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 여성 기업가정신과 창업과의 연결성: 여성 기업가정신의 공급과 수요 차원

- 창업의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창업활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활동이 기업조직 차원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경제성장, 고용창출,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증대(OECD, 2004)
  - 여성의 창업활동 참여는 기업조직 경쟁력 향상 및 장기적 생존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역량 다양성의 효과를 가져옴(삼성경제연구소, 2005)
  -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 하에서 창업은 여성의 주변자적 위치를 탈피하기 위한 대안책 일 뿐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됨(Brush, 1992)
- 여성의 기업가정신은 여성의 창업활동, 즉, ‘여성에 의한 창업(공급차원)’과 ‘여성을 위한 창업(수요차원)’의 핵심요인으로 작용([그림 1] 참조)



자료: 김선우 외(2016)

[그림 1]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프로세스: 기업가정신의 공급 및 수요요인

- 여성 기업가정신의 공급차원은 사회적 차원(성 역할 변화), 경제적 차원(경제활동 증대 및 기여), 가정·가계 차원(일과 삶의 균형), 개인 차원(경력단절 해법) 요인을 포함 (김영환·오지선, 2017)
  - 여성 고유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한국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의한 지위 향상과 사회적 역할이 변화(사회적 차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넘어 여성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의 경제적 성과 및 국가 기여도 증대(경제적 차원)
  -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의 출산, 육아 등의 가사부담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독립적이고 유연한 경제활동 방식으로서의 창업 가능성 부각(가정·가계 차원)
  - 경력단절을 넘어 개인의 자아실현과 도전정신, 자기만족감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발현 (개인 차원)
- 여성 기업가정신의 수요차원은 사회적 차원(여성 주도 트렌드), 산업·시장 차원(여성 친화 산업/시장), 기업 차원(리더십 및 직무능력), 개인 차원(성격 및 특성) 요인을 포함 (김영환·오지선, 2017)
  -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형태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의 영향력 확대 (사회적 차원)



- 미혼여성 중심의 패션, 미용, 쇼핑 산업, 기혼여성 중심의 교육, 육아 산업 등 여성 친화산업 및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지역문제해결형 비즈니스, 사회적 경제의 확산 트렌드(산업·시장 차원)
-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와 대응력, 유연성, 조직 내부의 수평적 리더십이 중시되는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여성적 리더십(기업 차원)
- 감성, 섬세함, 안정성, 소통 및 공감능력과 같은 여성 고유의 성격 및 특성(개인 차원)
- 여성 기업가정신의 공급차원은 여성 창업의 동기와 환경적 우호성을 부여하고, 수요차원은 여성의 창업기회와 역할 및 기여에 대한 예측력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 창업의 성과로 연결됨
  - 여성 기업가정신의 내면적 특성(기업가적 지향성, Entrepreneurial Orientation)이 우호적인 공급요인과 수요요인에 따라 창업활동으로 발현되며, 기업가적 프로세스를 거쳐 성장하여 성과를 거둠([그림 1] 참조)
  - 실증분석 결과, 혁신성, 위험감수성, 시장선도성, 자율성, 경쟁추구성, 성취욕구와 같은 여성 고유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창업경험 또는 창업계획과 같은 기업가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 ■ 여성 창업 및 창업가 특성

- 여성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 여성 창업가는 하향식(Top-down)의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리더십 특성을 보이며, 경쟁보다는 협동,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과, 권력보다는 개인의 역량을 우선시하고,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함(김양희·김홍숙, 2000; Loden, 1985)
  - 여성은 기업경영 및 사업 활동에 있어 남성보다 섬세함, 책임감, 성실성, 조직 친화력, 청렴함, 업무관리 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8)
- 여성 창업의 동기요인
  - 여성 창업가들은 남성 창업가들에 비해 심리적 특성과 삶의 양식,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비금전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Bird & Brush, 2002; Brush, 1986; Burke et al., 2002)
  - 남성이 주로 사회적 명예나 경제적 부의 추구하고 같은 창업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여성은 독립성, 자율성, 도전정신, 자기 만족감 등을 창업의 주된 동기로 꼽음(Buttner & Moore, 1997; Hisrich & Brush, 1986)
  - 기회적 동기 외에도 기존 조직 내에서의 임금, 승진기회, 고용차별, 기업 구조조정 등의 남성 대비 상대적 불만족 및 불평등도 중요한 창업동기로 부각됨(Morris et al., 2006)



- 여성 창업의 기회포착

- 여성 중심의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패션, 쇼핑, 미용 등의 20~30대 여성 중심의 주요 소비시장 및 육아, 교육, 가사 등 기혼여성의 생활서비스 시장에 여성창업의 기회가 크게 증가함(김영환·오지선, 2017)
- 여성들은 감성적 소비, 편리적 소비, 양성적 소비\* 등 다차원의 소비 특성을 동시에 보이며, 이에 대한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데 있어 여성이 유리(이지선 외, 2010)
- \* 전통적인 남성 중심 시장으로 여겨진 소비 시장(예: 게임, IT제품, 스포츠)에 여성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으로 새로움과 도전의 가치를 제공

- 여성 창업활동의 장애요인

- 여성 창업활동의 내부적 장애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자금조달 문제, 네트워크 부족 등이 꼽힘(Bahn et al., 2009; OECD, 2004)
- 비즈니스 외부적 요인으로는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일-가정 양립의 문제), 경력단절, 사회적 편견 등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분석됨(Ahl, 2006; Buttner & Moore, 1997; OECD, 2004; Swanson & Woitke, 1997; Tillmar,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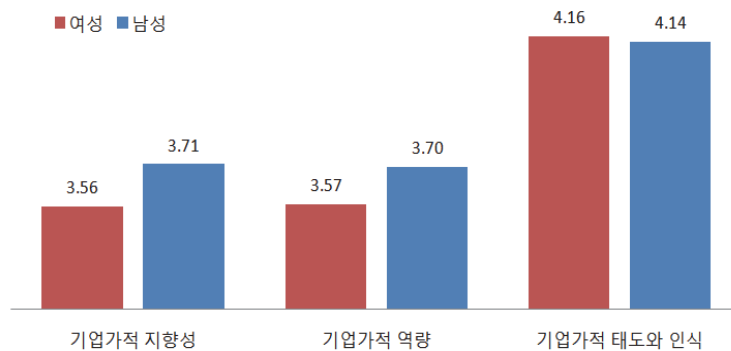
## ■ 여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 동향 연구의 필요성

- 여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오지선·김영환, 2016)
  - 전통적으로 경제사회 측면에서 여성이 주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가정신 및 창업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과 이해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여성 창업이 남성 창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성과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왔음에도 그 역할과 기여가 부각되지 못함
  - 대표자의 성별 차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기업활동에 있어 성별 차이를 유발하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음
  - 여성의 창업활동에 있어서의 일-가정 양립 등 비즈니스 외 핵심 이슈요인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못함
  - 여성의 창업활동에 있어서의 핵심 역량과 상대적 강점 및 우위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여성 창업분야 및 창업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 기업가정신 관점에서 본 여성 창업과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특성,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여성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활동에 있어서의 특성 및 차별점 파악을 파악하고, 남성 대비 여성 창업의 강점 및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여성 창업의 잠재성 검증
  - 여성 창업활동 및 환경요소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여성창업 생태계 현황 파악
  -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효과적 정책수단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2. 여성 기업가정신 현황

### ■ 여성 기업가정신 수준

- 여성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중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가적 역량은 남성에 비해 낮은 반면,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그림 2] 참조)
  - 창업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요소인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은 창업에 대한 실천적 의향이 남녀 간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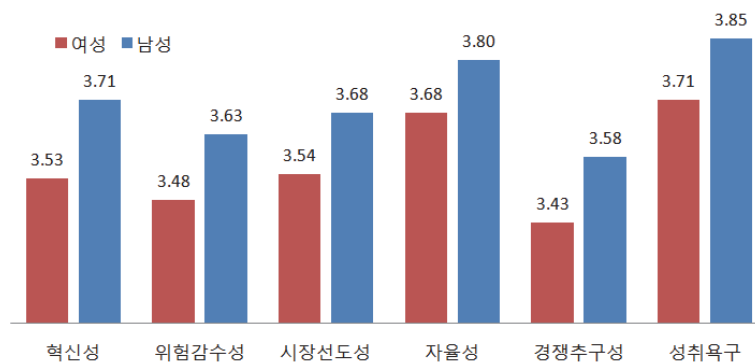


주: 기업가적 지향성,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으로 구분하여 7점 만점의 리커트 설문문항들의 평균 응답 수치를 점수화 (총 응답자 수: 여성 6,126명, 남성 5,878명)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2019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그림 2] 여성 기업가정신 수준(남성과의 비교) (2019년 기준)

- 기업가적 지향성은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았으며, 특히 혁신성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여성은 성취욕구, 자율성, 시장선도성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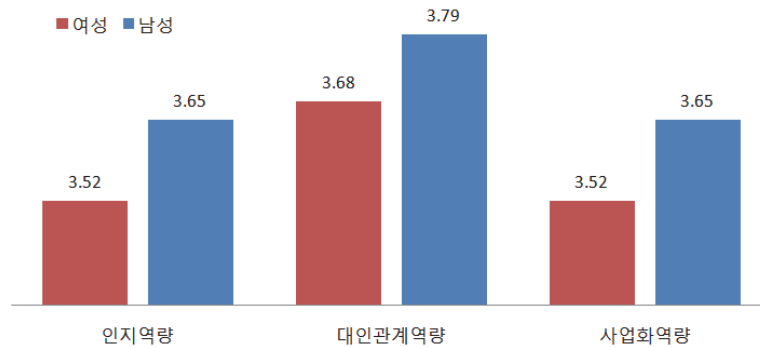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2019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그림 3] 여성 기업가정신 중 기업가적 지향성 수준(남성과의 비교)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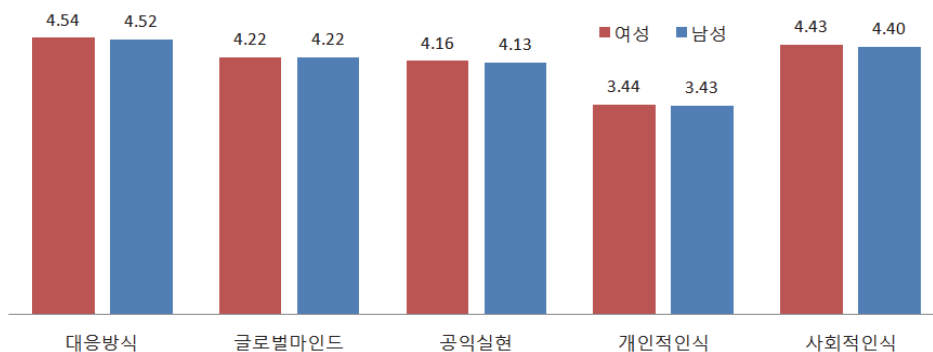
- 기업가적 역량 역시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았으며, 대인관계역량이 세부 요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그림 4) 참조)
  - 특히 일상의 문제를 사업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특화된 역량인 인지역량과 사업화 역량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2019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그림 4] 여성 기업가정신 중 기업가적 역량 수준(남성과의 비교) (2019년 기준)

-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그림 5) 참조)
  - 남녀 모두 개인적 인식이 사회적 인식에 비해 1점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개인이 인식하는 사업(창업)에 대한 기회와 역량 수준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2019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그림 5] 여성 기업가정신 중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 수준(남성과의 비교) (2019년 기준)

- 연령별로는 30대, 20대 순으로 전반적인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40대, 50대에서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가적 역량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40~50대 여성의 해당 지표의 낮은 수준은 여성의 30대 이후의 경력단절로 인한 기업가정신 지향성 및 역량 수준의 하락 가능성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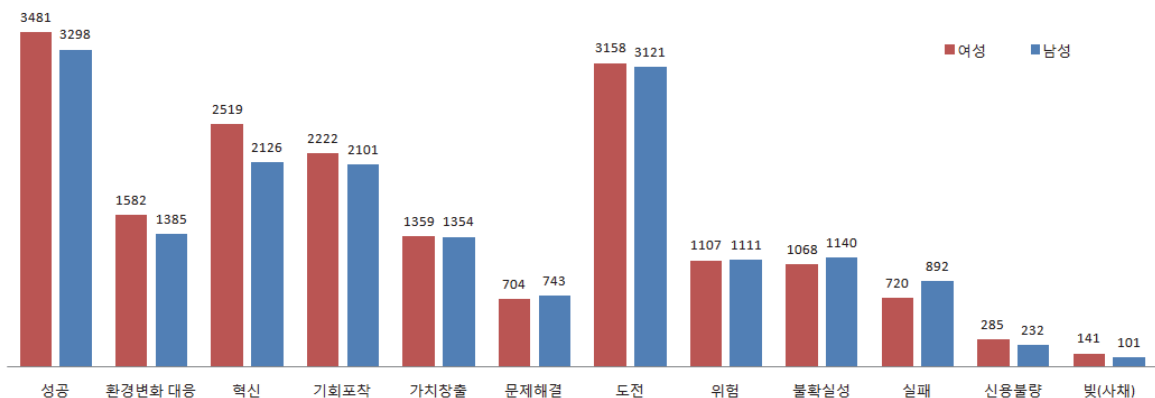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2019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그림 6] 연령별 여성 기업가정신 수준(남성과의 비교) (2019년 기준)

## ■ 여성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미지

- 기업가정신과 연상되는 이미지는 남녀 모두 성공과 도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그림 7 참조)
  - 반면 문제해결, 위험, 불확실성, 실패 등의 단어는 남성들에게 더 많이 각인되어 있어, 여성이 기업가정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이미지를, 남성이 기업가정신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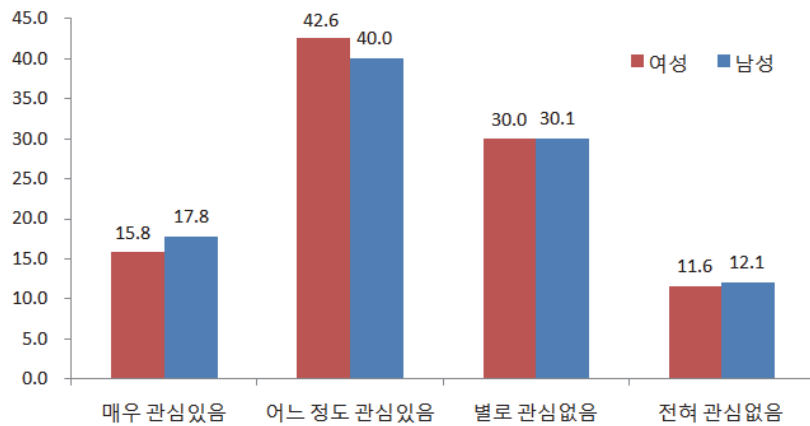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2019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그림 7] 기업가정신 연상 단어 남녀비교 (2019년 기준)



## ■ 여성의 창업에 대한 관심 및 의향

- 여성의 일반적인 창업에 대한 관심도는 남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지 않으나 적극적인 관심층(매우 관심있음)에 있어 남성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기록함([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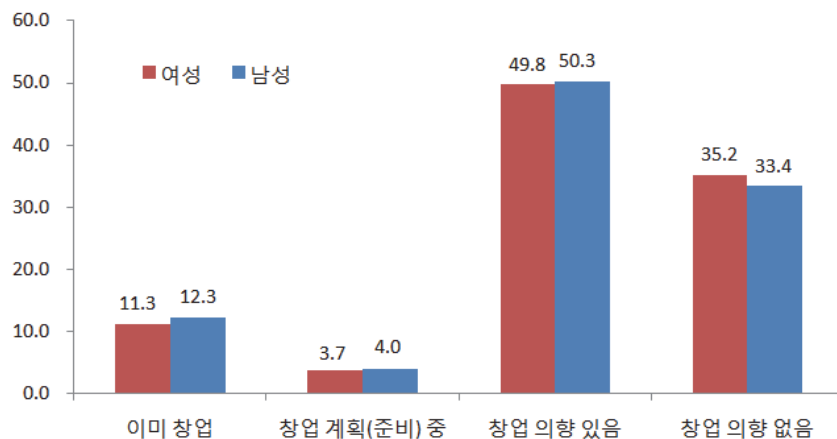


주: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의 경우, 2017년 기준 15~64세 주민등록인구 3,000명(남성 1,532명, 여성 1,468명 총화추출)을 대상으로 창업인식 및 의향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을 조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그림 8] 여성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남성과의 비교) (2018년 기준)

- 창업을 경험하거나 계획(준비) 중인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소폭 낮게 나타났으며, 창업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도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많았음([그림 9] 참조)
  - 다만 여전히 남녀 모두 창업을 실행했거나 계획 중인 인원의 비중보다는 창업에 대한 막연한 의향만을 보유한 인원의 비중이 높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그림 9] 여성의 창업의향(남성과의 비교) (2018년 기준)

### 3. 여성 창업 동향

#### ■ 여성 사업체 현황

- 여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업체(여성 사업체)의 수는 2018년 기준, 1,576,427개로 전체 사업체 중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임(〈표 1〉 참조)
  - 2012년 대비 16.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남성 사업체 증가율인 1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사업활동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 전국 여성 사업체 현황(종합) (2012~2018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사업체	3,602,461	3,676,859	3,812,800	3,874,146	3,950,169	4,019,872	4,103,172
여성 사업체	1,355,844	1,388,895	1,435,865	1,454,054	1,496,942	1,538,145	1,576,427
여성 비율	37.6	37.8	37.7	37.5	37.9	38.3	38.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자료 참조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 3차 산업의 여성 사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남(〈표 2〉 참조)
  - 숙박 및 음식점업(60.6%), 교육 서비스업(5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8.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3.3%), 도매 및 소매업(41.4%) 순으로 여성 사업체 비율이 높았음
  - 반면, 농림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이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등의 2차 산업의 경우 여성 사업체의 비율이 낮으며, 3차 산업 중에서도 운수 및 창고업,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여성 진입이 어려운 산업의 여성 사업체 비율이 낮게 나타남
- 다만, 최근(2012~2018년) 전체적으로 여성 사업활동이 부진했던 산업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남녀 간 산업별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임
  - 숙박·음식점업(2012년 64.2%에서 2018년 60.6%로 감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여성 사업체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특히, 전기·가스업(4.7%→16.1%), 농림어업(9.5%→14.6%),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12.9%→16.9%), 건설업(14.5%→19.1%), 금융 및 보험업(13.2→17.4%), 부동산업(31.9%→3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3.3%→48.1%)에서 최근(2012~2018년) 여성 사업체 활동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전국 17개 시도별 여성 사업체 수는 경기도(337,744개)가 가장 많으며, 여성 사업체 비중은 울산(44.8%)이 가장 높게 나타남(그림 10) 참조
  - 사업체 수가 많은 경기, 서울 지역의 여성 사업체 수 비중은 대체로 낮은 반면, 제주, 세종, 강원과 같은 사업체 수가 적은 지역의 여성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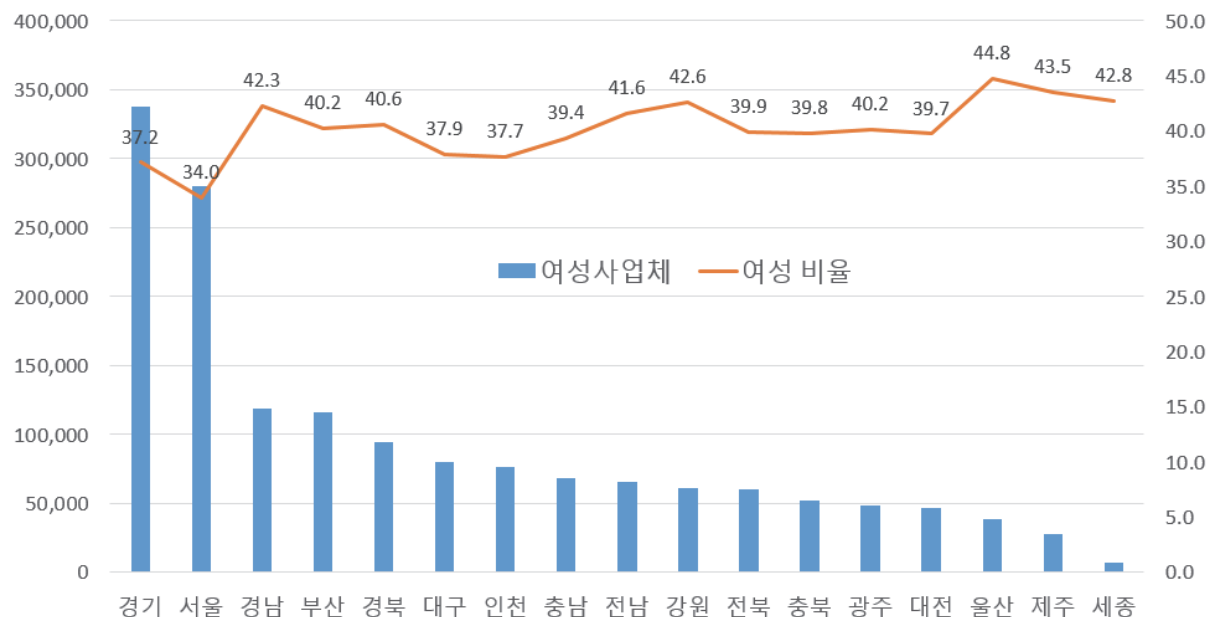


〈표 2〉 전국 여성 사업체 현황(산업별) (2012~2018년)

산업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업, 임업 및 어업	여성	227	276	389	428	508	572	621
	비율	9.5	10.4	12.3	13.3	14.0	14.7	14.6
광업	여성	195	202	217	218	217	219	210
	비율	10.6	10.7	10.8	10.8	10.8	10.9	11.0
제조업	여성	69,260	72,974	80,545	85,829	87,054	89,189	91,334
	비율	18.6	19.1	19.7	20.0	20.2	20.6	20.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여성	50	49	82	111	164	254	378
	비율	4.7	4.4	6.3	8.0	10.3	13.9	16.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여성	912	1,012	1,213	1,323	1,326	1,390	1,516
	비율	12.9	13.4	14.5	15.5	15.6	16.3	16.9
건설업	여성	16,121	18,247	21,560	23,492	24,606	25,461	27,351
	비율	14.5	15.4	16.6	17.5	17.9	18.4	19.1
도매 및 소매업	여성	384,230	394,500	406,629	413,571	417,633	421,219	425,614
	비율	40.9	41.2	40.9	40.9	41.1	41.2	41.4
운수 및 창고업	여성	20,004	20,978	23,794	23,894	24,737	25,543	27,039
	비율	5.5	5.6	6.3	6.3	6.4	6.6	6.8
숙박 및 음식점업	여성	432,283	436,644	442,067	441,282	450,139	458,052	464,242
	비율	64.2	63.7	62.9	62.1	61.7	61.3	60.6
정보통신업	여성	5,135	5,568	6,582	6,983	7,214	7,459	7,832
	비율	15.2	15.8	16.3	16.5	17.0	17.4	17.8
금융 및 보험업	여성	5,503	5,700	6,009	5,952	6,517	7,151	7,560
	비율	13.2	13.7	14.3	14.1	15.2	16.4	17.4
부동산업	여성	37,995	39,086	42,261	44,782	50,136	54,357	58,449
	비율	31.9	32.6	33.2	33.9	34.9	35.7	3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여성	10,651	11,351	13,327	14,621	15,060	15,616	17,684
	비율	12.6	12.9	13.8	14.3	14.6	15.0	15.7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성	15,171	16,307	18,095	18,401	19,097	19,611	20,578
	비율	26.8	27.3	27.6	27.7	28.4	28.8	29.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여성	565	586	674	769	840	904	1,050
	비율	4.7	4.9	5.6	6.2	6.7	7.2	8.4
교육 서비스업	여성	92,292	93,341	94,731	95,626	99,833	103,060	107,242
	비율	53.6	53.7	53.9	54.3	55.3	55.6	5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성	55,233	57,902	61,841	60,929	64,358	67,179	67,866
	비율	45.0	45.3	46.1	45.0	45.5	46.0	4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여성	44,068	44,523	44,576	43,846	47,584	51,227	52,699
	비율	42.1	42.7	42.9	43.3	43.2	43.1	4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여성	165,949	169,649	171,273	171,997	179,919	189,682	197,162
	비율	43.3	44.0	44.4	44.9	46.2	47.3	48.1

주: '여성'은 여성 사업체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자료 참조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10] 전국 시도별 여성 사업체 현황 (2018년 기준)

## ■ 여성 창업기업 현황

- 여성 신생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포함)의 수는 2018년 기준, 428,370개로 전체 신생기업 중 46.6%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2012~2018년)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해당 비율은 여성 사업체 수 비중인 38.4%보다 높은 수치임(〈표 3〉 참조)

〈표 3〉 전국 여성 신생기업 현황(종합) (2012~2018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신생기업	769,878	748,691	842,789	813,202	876,414	913,340	919,854
여성 신생기업	352,924	339,534	385,523	370,473	399,760	420,974	428,370
여성 비율	45.8	45.4	45.7	45.6	45.6	46.1	46.6

주: 본 통계는 행정자료(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등)에 등록 또는 신고한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작성되며(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신생기업은 당해연도(t)와 전년도(t-1)의 활동 영리기업DB 비교를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기업생멸행정통계' 각년도 자료 참조

-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서 여성 신생기업의 비중이 높으면서 동시에 증가율도 높았으며, 전기·가스·증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은 여성 신생기업 비중이 낮았으나 최근 증가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은 기본적으로 여성 신생기업의 비중이 높으나 최근 증가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건설업,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여성 신생기업 비중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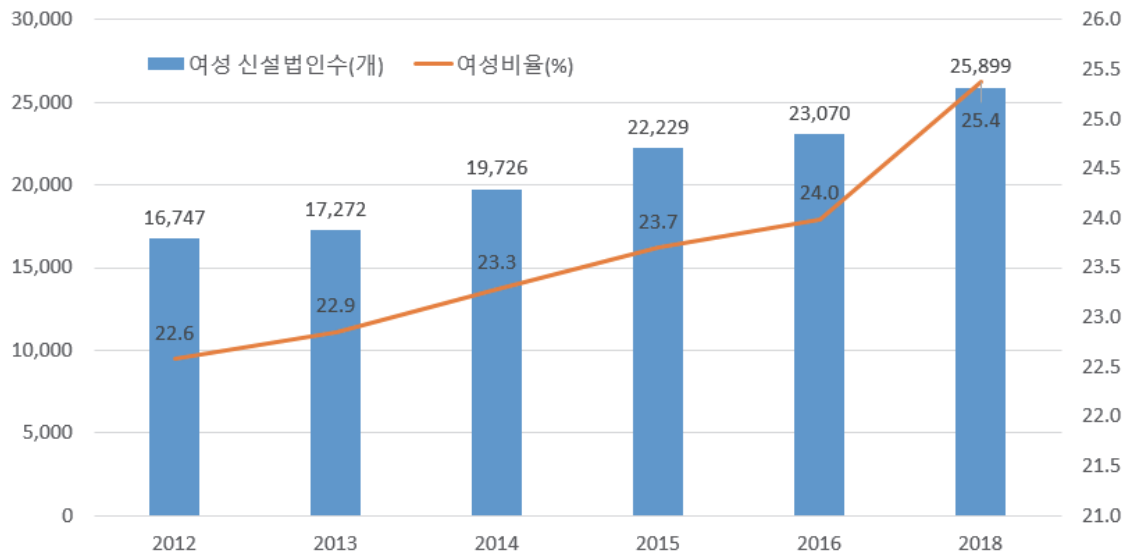


〈표 4〉 전국 여성 신생기업 현황(산업별) (2012~2018년)

산업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광업	여성	43	35	46	26	41	42	33
	비율	19.1	17.9	20.4	16.0	18.2	24.7	19.8
제조업	여성	14,337	14,105	15,253	14,716	14,981	14,210	14,168
	비율	27.9	27.6	28.4	29.5	29.2	29.5	29.5
전기, 가스, 증기업	여성	307	575	1,859	2,733	1,617	2,208	3,775
	비율	35.9	39.6	42.6	45.8	43.1	44.5	42.9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여성	165	145	166	155	181	192	187
	비율	22.1	20.5	23.1	25.9	25.3	26.9	25.9
건설업	여성	8,548	8,183	9,244	10,448	11,477	12,284	12,666
	비율	25.0	24.9	25.3	26.3	26.5	26.7	26.3
도매 및 소매업	여성	109,755	101,773	108,086	100,366	104,927	106,311	102,199
	비율	50.2	49.2	49.8	49.6	50.1	50.7	51.1
운수, 창고업	여성	6,887	6,124	6,610	6,820	6,706	6,608	6,495
	비율	16.1	14.7	14.8	15.5	13.6	13.3	13.8
숙박 및 음식점업	여성	94,218	88,089	101,065	94,735	97,992	94,792	91,147
	비율	60.9	59.9	60.0	58.9	58.8	58.0	57.6
정보통신업	여성	2,876	3,023	3,192	3,279	3,447	3,960	4,579
	비율	24.2	24.1	24.7	24.8	24.6	26.9	27.9
금융 및 보험업	여성	1,540	1,756	1,606	1,386	1,445	1,268	1,063
	비율	34.6	35.9	36.2	35.8	34.6	33.2	32.8
부동산업	여성	57,547	60,025	75,909	74,109	85,493	105,186	117,915
	비율	45.7	46.8	46.2	46.3	47.0	48.8	5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여성	4,955	5,225	6,377	5,923	6,879	7,566	8,327
	비율	25.8	26.0	27.5	27.7	27.8	29.8	3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성	4,565	4,636	5,128	6,160	7,134	8,410	8,263
	비율	30.6	29.9	30.3	31.2	31.6	32.0	31.0
교육서비스업	여성	15,693	16,635	17,059	16,729	16,203	18,323	19,570
	비율	57.8	59.1	59.9	61.4	61.1	64.2	6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성	1,899	1,604	1,581	1,302	1,512	1,413	1,295
	비율	29.6	27.2	27.5	25.9	28.0	27.4	27.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여성	9,840	9,090	9,910	9,573	14,663	12,477	11,265
	비율	44.6	45.4	44.4	44.8	46.7	43.9	45.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여성	19,749	18,511	22,432	22,013	25,062	25,724	25,423
	비율	57.6	58.7	57.9	57.8	61.3	60.8	60.3

주: '여성'은 여성 신생기업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기업생멸행정통계' 각년도 자료 참조

- 여성 신설법인 수는 2018년 기준 25,899개로 전체 신설법인 수(102,042개) 대비 25.4%를 차지하며 2012~2018년 사이 매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임([그림 11] 참조)
  - 하지만 전국 사업체 수 대비 여성 사업체 비율(38.4%)이나 전국 신생기업 수(개인 및 법인사업자 포함) 대비 여성 신생기업 비율(46.6%)에 비해 여성 신설법인 비율이 낮게 나타나, 여성의 법인 형태의 창업활동이 남성보다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창업기업동향 - 신설법인동향' 각년도 자료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11] 전국 여성 신설법인 현황 (2012~2018년)

- 산업별로는 2018년 기준, 서비스업의 여성 신설법인 수가 16,917개로 가장 많고,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업의 여성 신설법인 비중이 29.5%로 큰 증가추세를 보임(<표 5> 참조)
  - 제조업의 경우 2018년 여성 신설법인 수가 4,081개로 2016년에 비해 기업 수와 여성 비율이 모두 감소하여 여성 창업활동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전국 여성 신설법인 현황(산업별) (2012~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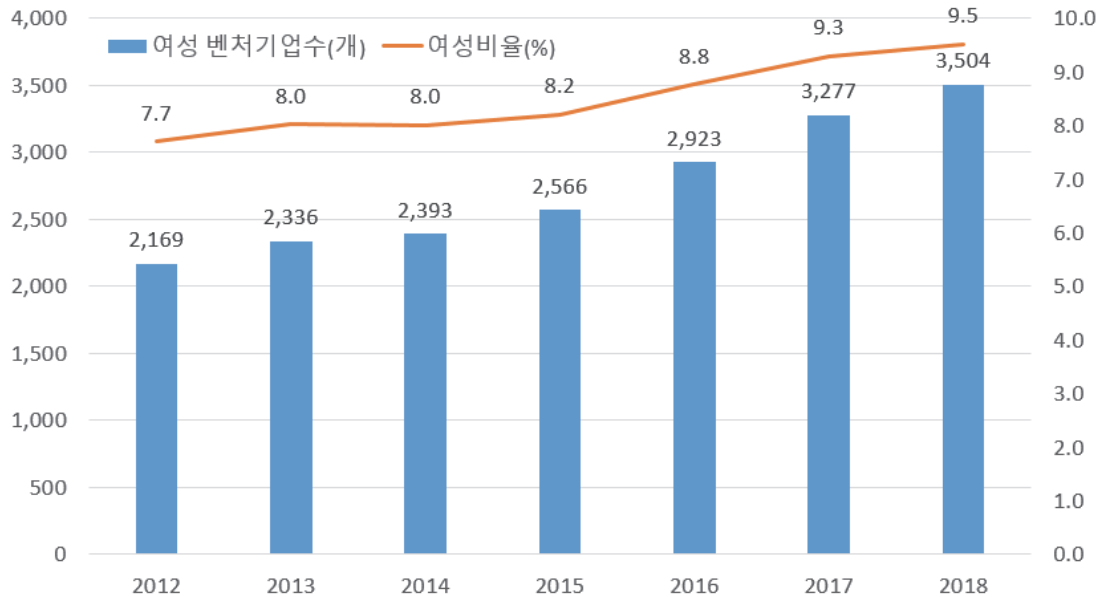
산업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농·임·어업 및 광업	여성	438	391	610	768	585	347
	비율	21.2	23.9	23.5	24.3	24.5	22.7
제조업	여성	3,512	3,863	4,035	4,221	4,238	4,081
	비율	19.8	20.6	20.7	20.9	22.3	21.5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여성	1,843	1,905	2,460	2,800	3,134	4,554
	비율	24.9	24.5	25.9	26.1	27.7	29.5
서비스업	여성	10,954	11,113	12,621	14,440	15,113	16,917
	비율	23.3	23.4	23.8	24.2	23.8	25.6

주: '여성'은 여성 신설법인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창업기업동향 - 신설법인동향' 각년도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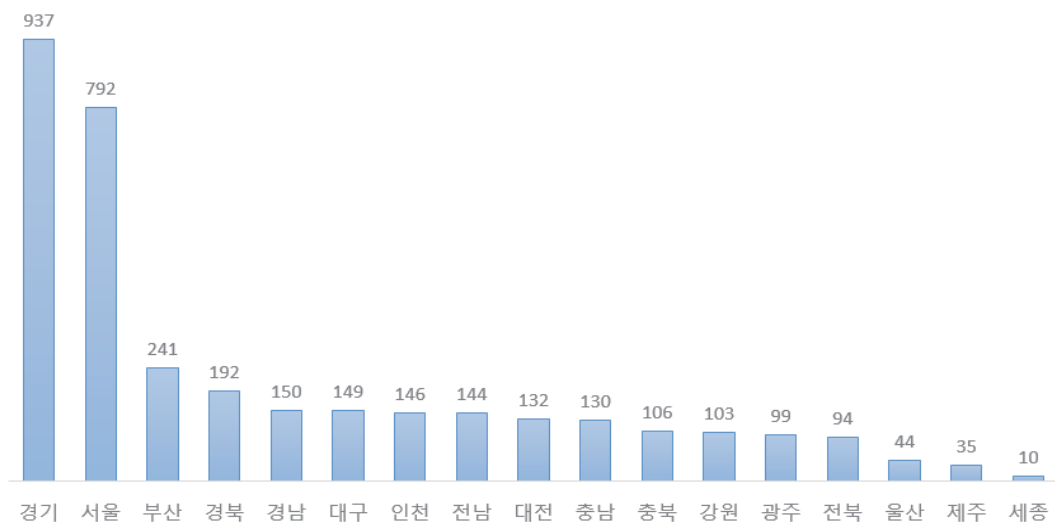
## ■ 여성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현황

- 벤처등록기업 중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 수는 2018년 3,504개로, 2012년 2,169개에서 61.5% 증가했으나 전체 벤처기업 중 여성 비율은 9.5%에 불과([그림 12] 참조)
  - 시도별로는 경기도의 여성 벤처기업 수가 937개로 서울의 792개보다 많으며, 두 지역의 여성 벤처기업 수가 전국의 49.3%를 차지함(2018년 기준)([그림 13] 참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 '2018 여성기업 관련통계' 연구진 재작성

[그림 12] 전국 여성 벤처기업 현황 (2012~2018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 '2018 여성기업 관련통계' 연구진 재작성

[그림 13] 전국 시도별 여성 벤처기업 현황 (2018년 기준)

## ■ 여성 창업기업의 성과

- 여성 창업기업의 재무 관점에서의 기업 규모는 남성 창업기업에 비해 작으나, 자본 건전성 및 수익률은 남성 창업기업에 비해 크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표 6〉 참조)
  - 자본, 부채, 자산의 절대 규모는 남성보다 여성 창업기업이 작으나, 자기자본비율(41.2%), 부채비율(142.6%)이 높아 기업의 재무 안전성이 우수함
  - 매출액 규모는 남성보다 여성 창업기업이 훨씬 적으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규모는 오히려 더 많아 기업 수익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여성 창업기업이 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영업이익률 11.3%, 순이익률 10.0%)

〈표 6〉 여성 창업기업의 재무성과(남성 창업기업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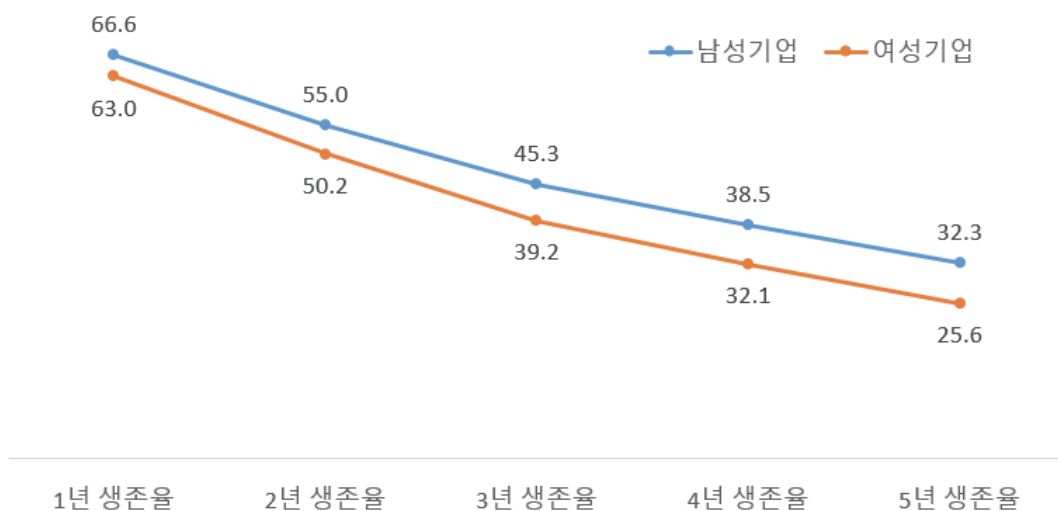
(단위: 개, 천원, %)

구분	기업 수	자본	부채	자산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여성 창업기업	788,599	140,155	199,851	340,006	41.2	142.6
남성 창업기업	1,242,388	176,514	303,222	479,736	36.8	171.8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여성 창업기업	392,540	44,319	2,256	39,243	11.3	10.0
남성 창업기업	722,825	42,811	4,208	36,826	5.9	5.1

주: 본 조사대상은 사업개시 7년 이내 창업기업 8,000개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전체 213만여개의 창업기업의 성과를 추정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참조하여 연구진 재작성

- 여성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남성 창업기업에 비해 다소 낮으며, 장기적으로 생존율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 여성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에 한계를 보임(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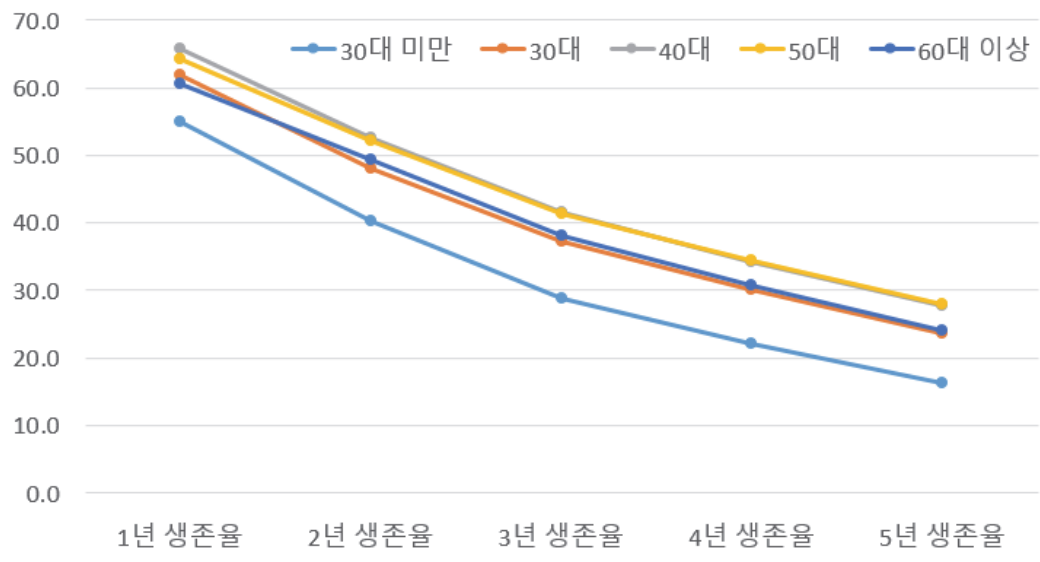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기업생멸행정통계' 2017년 자료 참조

[그림 14] 여성 창업기업의 생존율(남성 창업기업과의 비교) (2017년 기준)



- 여성 대표자 연령별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40대, 50대가 가장 높으며, 30대 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남([그림 15] 참조)
  - 30대 미만은 창업 및 기업경영과 함께 취업 또는 진학과 같은 경력 대안이 존재하여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기업생멸행정통계' 2017년 자료 참조

[그림 15] 여성 창업기업의 생존율(연령별) (2017년 기준)

- 여성 창업기업 중 1/3가량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의 손익분기점 도달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7> 참조)
  - 여성 창업기업 중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65.5%이며, 주로 1~3년 사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함
  - 비제조업(61.7%)보다 제조업(79.2%)의 손익분기점 도달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1년 미만의 초단기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기업의 비중은 비제조업이 더 높음(3.3%)

<표 7> 여성기업의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및 도달 기간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7년 미만	해당 없음
전체	3.0	22.2	22.5	9.5	4.8	2.6	0.9	34.5
제조업	1.8	26.6	24.9	16.1	5.2	3.9	0.8	20.8
비제조업	3.3	21.0	21.9	7.8	4.7	2.2	0.9	38.3

주: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여성 기업체의 모집단 71,046개를 대표하는 전국 4,526개 기업체를 층화추출하여 조사하며, 본 항목의 경우 조사대상 중 창업연도가 2010년 6월 이후인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4. 여성 창업생태계 현황

### ■ 여성의 창업준비 및 실행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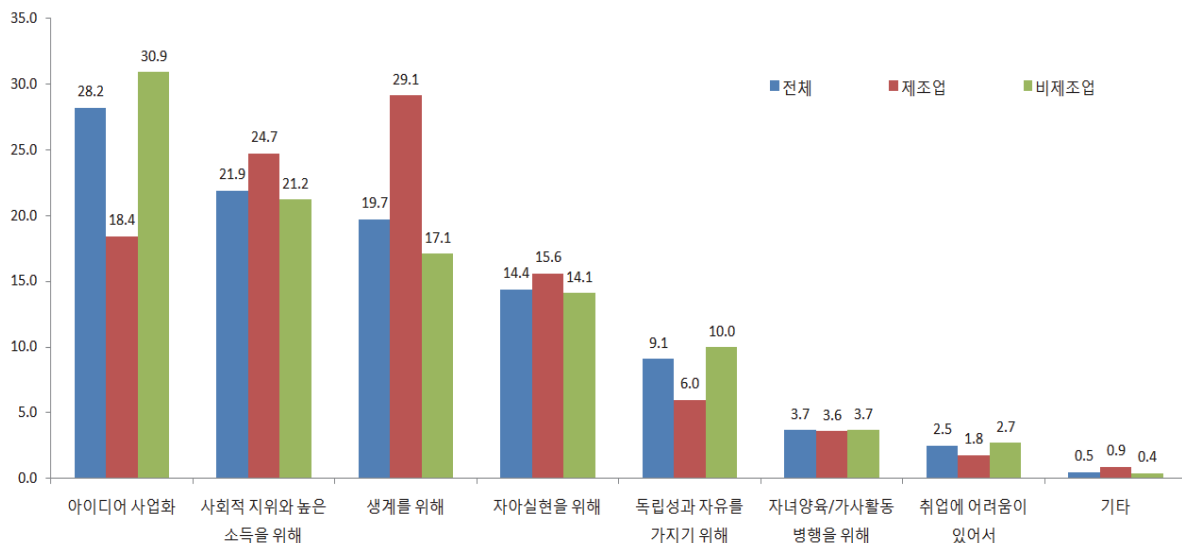
- (창업동기) 여성 창업자는 생계형 보다 기회형 창업 비중이 높았으며(남성도 동일), 남성에 비해 기회형-생계형 창업에 대한 단일 동기 비중이 높게 나타남(62.7%)(〈표 8〉 참조)
  - 여성기업의 창업동기는 아이디어 사업화, 사회적 지위 및 소득, 생계, 자아실현 순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의 경우 생계 목적의 창업동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남(그림 16) 참조)

〈표 8〉 여성 창업자의 기회형-생계형 창업동기 비중(남성과의 비교)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기회형	생계형	둘 다 해당
여성 기업	788,599	35.4	27.3	37.3
남성 기업	1,242,388	32.9	24.6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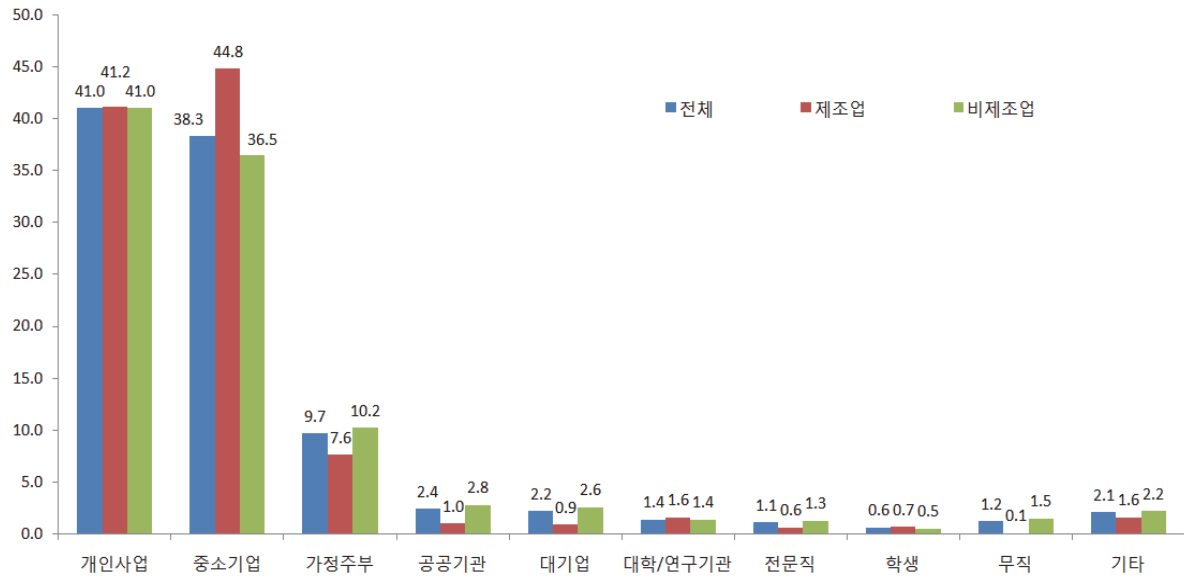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16] 여성 창업기업의 창업동기(제조업-비제조업) (2018년 기준)

- (이전 직업) 여성은 창업 전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인사업이나 중소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연구기술직, 기능생산직보다는 일반사무직,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았음
  - 제조업의 경우 비제조업에 비해 여성 창업자의 창업 전 중소기업 취업 비중은 높게, 대기업의 취업 비중은 낮게 나타남(그림 17) 참조)
  - 여성 창업자의 연구기술직, 기능생산직 비중이 낮고, 단순노무직, 일반사무직 비중이 높은 것은 여성 창업자의 혁신역량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보여줌(〈표 9〉 참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17] 여성 창업자의 이전 직업

〈표 9〉 여성 창업자의 이전 근무 직종(남성과의 비교)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경영관리직	연구기술직	일반사무직	기능생산직	영업판매직	단순노무직
여성 기업	381,786	25.6	2.5	29.8	14.8	17.4	10.0
남성 기업	844,377	27.4	11.4	21.5	20.4	16.4	2.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창업준비) 여성 창업자의 창업준비 기간은 남성 창업자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으며(11.4개월), 남성에 비해 공동창업 비중과 첫창업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표 10〉 참조)
  - 긴 창업준비 기간과 공동창업 비중이 높은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창업활동에 대해 보다 신중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보여줌

〈표 10〉 여성 창업자의 창업 준비 현황(남성과의 비교)

(단위: 개, 개월, %)

구분	기업 수	창업준비기간	단독창업	공동창업	첫창업	재창업	과거창업 횟수
여성 기업	788,599	8.7	93.0	7.0	70.5	29.5	2.5
남성 기업	1,242,388	11.4	94.9	5.1	68.8	31.2	2.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 여성 창업기업의 경영 환경

- (자금조달) 여성 창업기업은 남성 기업에 비해 자기자금이나 개인차용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반면, 금융권 대출 또는 자본투자유치(엔젤/VC) 비중은 낮게 나타남(〈표 11〉 참조)
  - 추가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여성의 자기자금 및 개인 간 차용과 같은 개인 차원의 자금조달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정부융자 및 보증, 엔젤/VC, 금융권 대출 등 외부 자금조달 비중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 다만 '창업기업 실태조사' 각 년도 자료를 참조할 경우, 최근 여성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11〉 여성 창업기업의 소요자금 규모 및 조달방법(남성과의 비교)

(단위: 천원, %, 중복응답 허용)

구분		창업 시 소요자금	자기자금	개인 간 차용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정부융자 및 보증	엔젤/VC	은행/비은행 대출
창업자금	여성 기업	218,397	93.1	20.5	2.4	3.5	0.3	31.8
	남성 기업	399,784	92.0	19.1	2.5	4.3	1.1	32.1
추가자금	여성 기업	-	81.7	8.2	1.5	3.2	0.1	16.8
	남성 기업	-	79.6	6.1	1.4	4.5	0.6	20.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교육경험) 여성 창업자의 창업 전 교육경험은 남성보다 더 풍부했으며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에서 교육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12〉, 〈표 13〉 참조)

〈표 12〉 여성 창업자의 창업교육 경험여부(남성과의 비교)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여성 기업	788,600	19.2	80.8
남성 기업	1,242,389	17.2	82.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표 13〉 여성 경영자 대상 교육(연수) 참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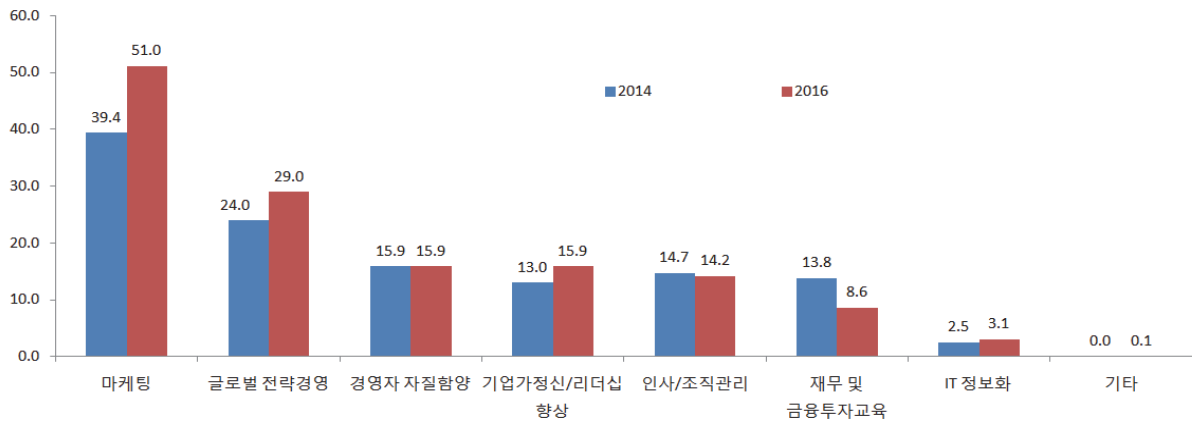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71,046	12.7	87.3
제조업	12,260	8.8	91.2
비제조업	57,786	13.6	86.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여성 경영자가 가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마케팅(51.0%)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경향은 재무·금융에 관한 교육(8.6%)보다는 글로벌 전략경영(29.0%), 기업가정신 및 리더십(15.9%)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그림 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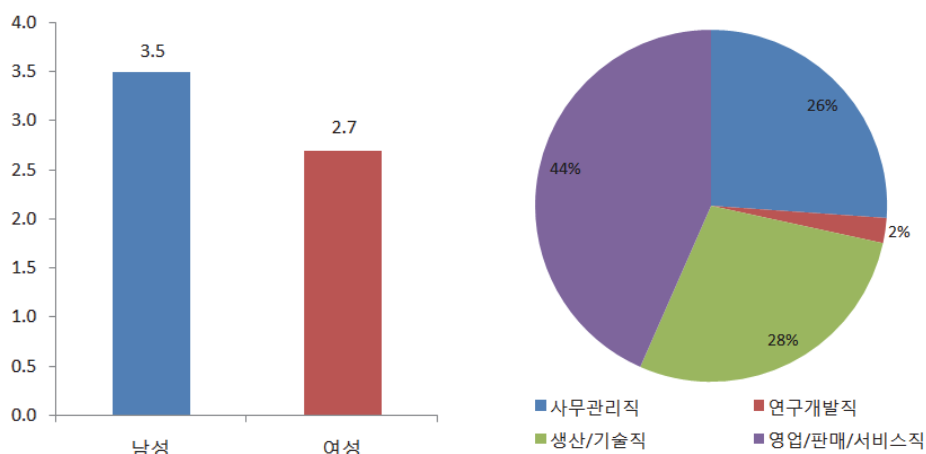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 허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18] 여성 경영자의 필요 교육 분야

- (인력) 여성 창업기업 인력규모는 남성에 비해 적은 편이며, 인력의 영업/판매/서비스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그림 19] 참조]
- 여성 기업의 평균 인력규모는 2.7명으로 남성의 3.5명에 비해 적은 편이며, 여성 기업의 여성 인력 비율은 평균 85.2%에 이룸(남성 기업의 여성 인력 비율은 평균 22.9%)
- 여성기업의 인력 중 영업/판매/서비스직은 43.4%에 이르나 연구개발직은 2.3% 수준에 불과하여 기업 내부 인적자원으로부터의 혁신역량에 한계가 존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8),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19] 여성 창업기업 종사자 수 및 여성기업 인력실태

- (혁신자원) 산업재산권, 연구개발 부서 및 인력 등 기업의 혁신역량을 대변하는 혁신자원 보유 측면에 있어 여성 창업기업이 남성 창업기업보다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창업기업의 산업재산권의 보유 비중은 전체 기업의 1.4%로 남성의 3.6%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보유 건수도 낮으나, 디자인 및 상표권은 오히려 여성 기업이 남성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표 14〉 참조)

〈표 14〉 여성 창업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남성과의 비교)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보유 합계(기업당)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해외 산업재산권
여성 기업	11,035	1.90	1.05	0.12	0.26	0.48	0.00
남성 기업	44,775	2.14	1.35	0.19	0.25	0.32	0.02

주: '창업기업 실태조사' 전체 추정기업 수(모수) 123만여 개 중 산업재산권 보유 추정기업 55,810개 기업에 대한 추정 결과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여성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조직·보유 비율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남성의 5.5%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적극적 연구개발 노력이 부족(〈표 15〉 참조)

〈표 15〉 여성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남성과의 비교)

(단위: %)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연구개발 인력만 보유	모두 미보유
여성 기업	0.2	0.6	2.2	97.0
남성 기업	1.2	0.7	3.6	94.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협력 및 제휴 활동) 여성 창업기업의 협력 및 제휴 활동은 남성에 비해 활발한 편으로, 특히 기술협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6〉 참조)
  - 여성 기업은 남성 기업에 비해 조달협력이나 판매협력의 비중이 낮은 편

〈표 16〉 여성 창업기업의 협력제휴 경험 및 협력유형(남성과의 비교)

(단위: %, 중복응답 허용)

구분	협력 경험	기술협력	조달협력	생산협력	판매협력	자본협력
여성 기업	15.3	55.5	14.4	16.9	12.6	1.0
남성 기업	13.2	39.4	21.0	18.1	21.8	5.1

주: '창업기업 실태조사' 전체 추정기업 수(모수) 123만여 개 중 산업재산권 보유 추정기업 55,810개 기업에 대한 추정 결과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영업 및 마케팅) 여성 창업기업은 남성 창업기업에 비해 홍보마케팅 활동 비율이 다소 낮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비중이 가장 크나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활동이 남성 창업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였음(〈표 17〉 참조)



〈표 17〉 여성 창업기업의 영업방식 및 홍보마케팅 활동 유형(남성과의 비교)

(단위: %)

구분	직접영업 비중	인터넷	TV라디오 매체	인쇄매체	옥외광고	전시회 /박람회	판촉활동	해당없음
여성 기업	92.7	11.6	0.4	8.6	3.6	0.3	2.7	79.0
남성 기업	92.9	13.5	0.5	7.0	3.7	0.8	2.8	77.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해외진출) 여성 창업기업은 남성 창업기업에 비해 수출 활동 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노력이 부족함(〈표 18〉 참조)
  - 해외 수출 중인 여성 창업기업 비중은 0.8%로 남성 창업기업 2.4%의 1/3 수준

〈표 18〉 여성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활동 현황(남성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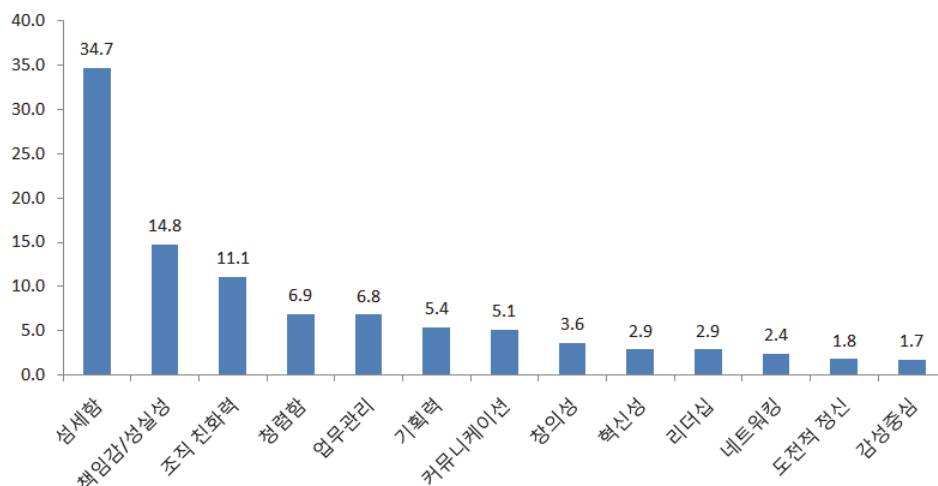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수출안함	수출함	해외수출만 함	단독사업장 설립	인수합병	합작법인 설립	전략적 제휴
여성 기업	99.2	0.8	0.6	0.1	0.1	0.0	0.0
남성 기업	97.6	2.4	1.9	0.1	0.0	0.0	0.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 여성 창업기업의 강점 및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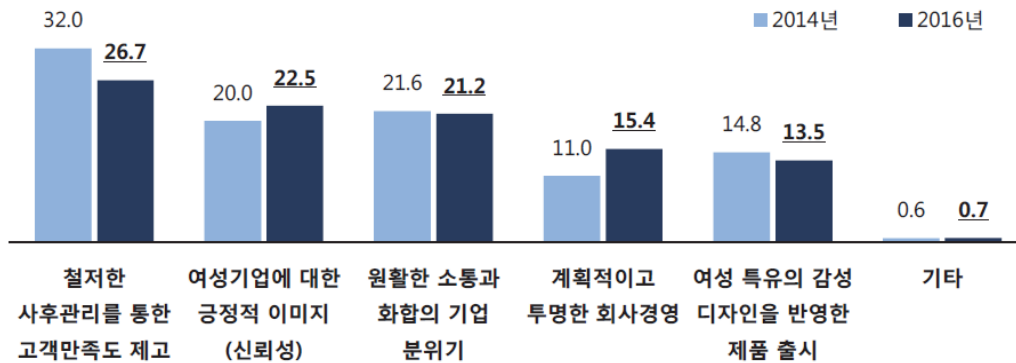
- (여성기업인의 강점) 기업경영 및 사업활동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한 요소로는 섬세함, 책임감 및 성실성, 조직 친화력, 청렴함, 업무관리능력 등이 꼽힘(〈그림 20〉 참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20] 여성기업인의 강점(남성기업인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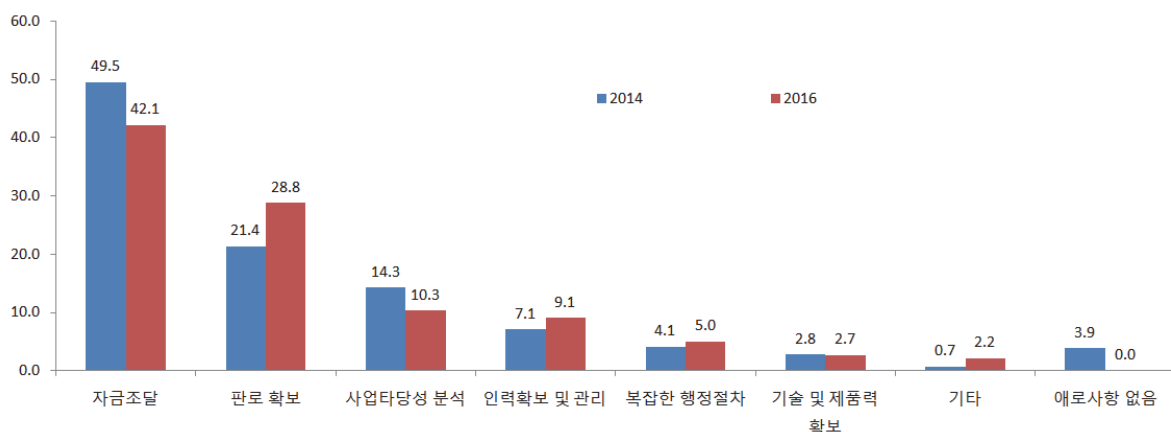
- (여성기업의 장점)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여성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등과 함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의 기업 분위기, 계획적이고 투명한 회사 경영 등의 기업문화 차원의 요소가 장점으로 꼽힘([그림 21] 참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21] 여성기업의 장점(남성기업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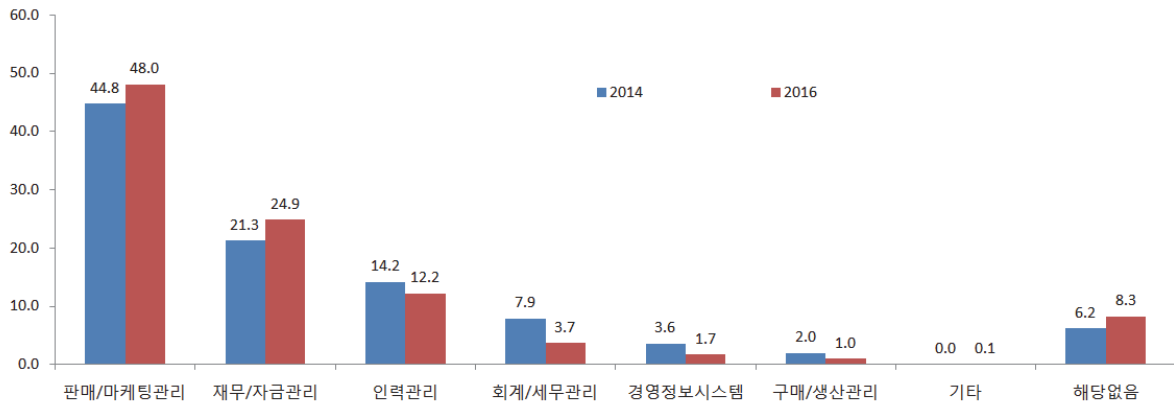
- (창업 준비 및 사업운영 시 애로사항) 여성 창업자의 창업 준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며([그림 22] 참조), 초기 사업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매 및 마케팅 관리임([그림 23] 참조)
  - 자금조달을 애로요인으로 꼽는 비중은 낮아진 반면, 판로확보의 비중은 높아짐
  - 판매 및 마케팅 관리, 재무 및 자금 관리의 애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계 및 세무관리, 경영정보시스템, 구매 및 생산관리 등은 관련 전문가 및 컨설턴트,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애로요인으로 꼽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주: 중복응답 허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22] 여성 창업자의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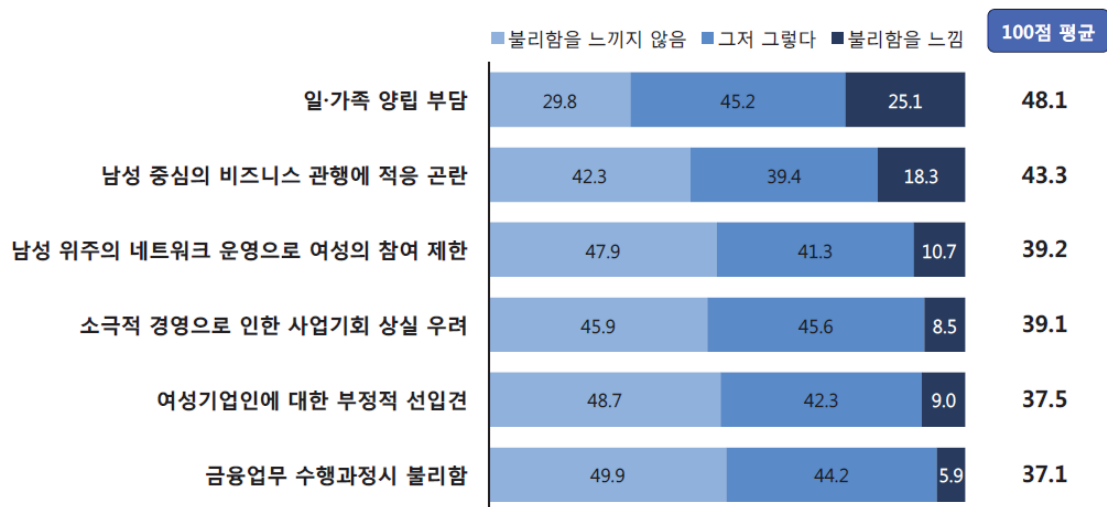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 허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23] 여성 창업자의 초기 사업운영 시 애로사항

- (여성기업인의 경영상 불리한 점) 남성 기업인 대비 여성 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불리한 점으로 일·가족 양립의 부담이 가장 컸으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함([그림 24] 참조)
  -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가족 양립 부담에 비해 개선된 측면이 있음(이전 조사에서는 남성 중심 비즈니스 관행이 1위 기록)
  - 여성기업인의 네트워크 구축 애로와 관련해서는 남성 중심의 창업기업 생태계 특성 상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남성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따라서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가 어려운 여성 기업인들의 공동체(커뮤니티) 형식의 여성기업 관련 단체들이 설립되어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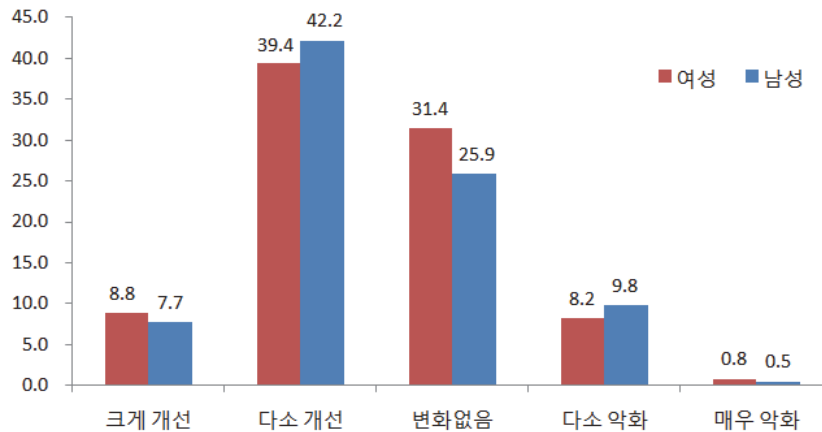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24] 여성 기업인의 경영상 불리한 점(남성 기업인 대비)

## ■ 여성의 창업환경 및 정책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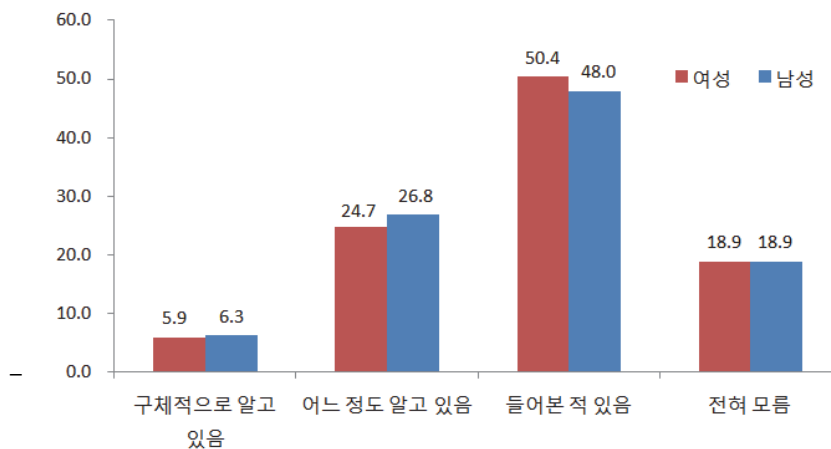
- 한국의 아이디어 및 기술 창업에 대한 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소폭 높았으나, 다소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그림 25] 참조)
  -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주: 여성 응답자 중 11.4%, 남성 응답자 중 14.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본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그림 25] 여성의 창업환경 평가(3년 전 대비)(남성과의 비교)

- 창업교육, 시설공간 지원, 멘토링컨설팅 등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여성의 비중은 남성보다 다소 낮은 편임([그림 26] 참조)
  - 들어본 적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비슷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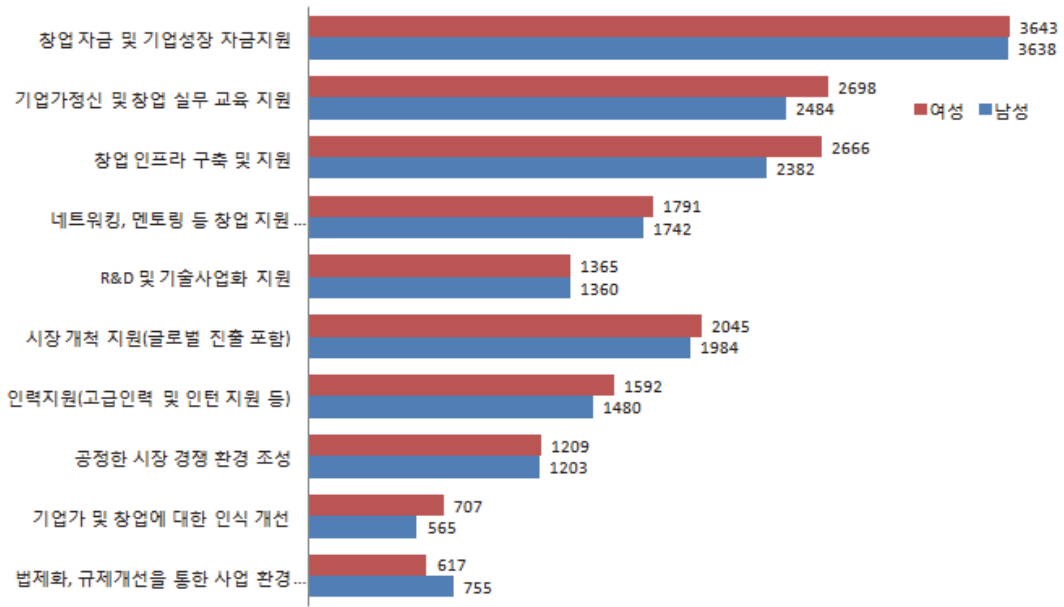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그림 26] 여성의 정부 창업지원사업 인지도(남성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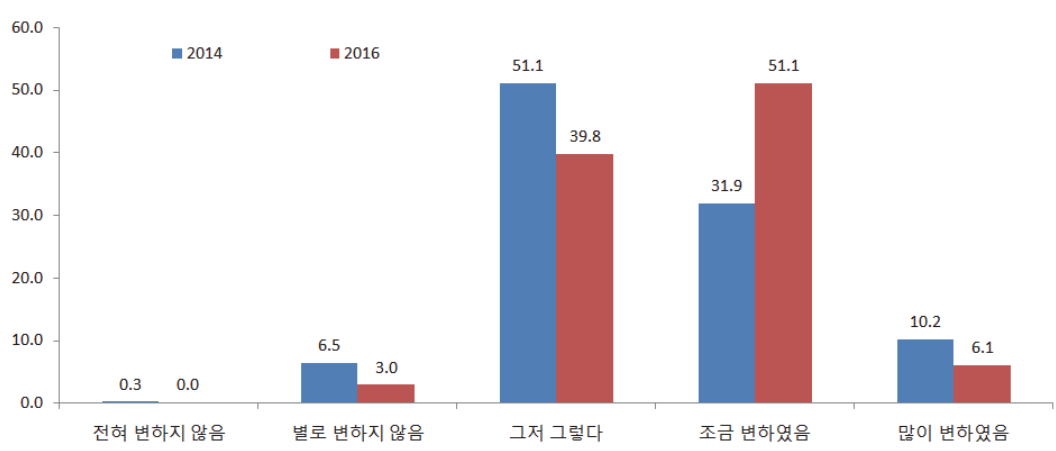
-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 정책 중에는 남녀 모두 자금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여성은 상대적으로 실무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더 중요시함(그림 27 참조)
  - 남성의 경우 자금,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법제화 및 규제개선의 필요성 강조



주: 정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활성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선택한 결과를 우선순위 없이 합산한 결과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2019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그림 27] 여성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활성화 정책 중요도(남성과의 비교)

-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대우 등 부정적 인식은 최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28 참조)
  -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응답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57.2%, 2016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그림 28] 여성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



## 5. 창업 성공사례를 통해 본 여성 기업가정신

### ■ 사례 선정 및 특성

- 여성 창업가는 e-커머스, 바이오테크, 핀테크에서 소셜벤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를 거두고 있음
  - IT/데이터 기술 및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비즈니스에 여성 창업 성장세가 두드러지나, 바이오테크 등 고기술 기반 창업에 있어서도 성공사례가 생겨남
- 본고에서는 마켓컬리(e-커머스), 수젠텍(바이오테크), 핀다(핀테크), 시지온(소셜벤처)의 네 여성 창업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여성 창업의 다양한 성공 유형과 함께 여성창업가로서의 특성과 핵심 성공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표 19〉 여성 창업 대표 성공사례에 대한 특징 요약

구분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e-커머스/푸드테크)	수젠텍 손미진 대표 (바이오테크)
설립년도	2015년(2014년 12월 31일)	2011년
제품/서비스	농수산물, 식품, 생활용품 판매·배송 서비스 '마켓컬리'	의료 다중진단, 현장진단, 자가진단 기기
주요실적	매출 1,571억원('18), 투자유치 1,350억원(시리즈D)	매출 54.5억원('18), 코넥스, 코스닥 상장('19)
창업동기 /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컨설팅 기업 근무 경험으로 높은 비즈니스 이해</li> <li>● 음식에 대한 관심 및 맛집 동호회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연, 대기업 경험으로 '진단' 분야 잠재력 확신</li> <li>● ETRI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출자 연구소기업 설립</li> </ul>
사업모델 /시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식재료를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중간 유통단계 없이 제공('Farm-to-Table')</li> <li>● 수도권 내 주문 익일 새벽배송 '샛별배송' 서비스</li> <li>● 빅데이터 분석 수요예측을 통한 상품 직거래·직매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의 대상, 방식에 따라 바이오마커와 진단플랫폼을 두 축으로 하는 기술·제품개발 및 시장전략 수립</li> <li>● 다중진단, 중소형병원 대상의 현장진단, 개인사용자 대상의 자가진단의 3가지 진단 플랫폼에서,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치매, 결핵, 여성질환 등 진단제품 개발</li> </ul>
기업가정신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여성의 신선식품 선호를 간파, 유통업계 최초로 수도권 지역 새벽시간 직배송 체계를 구축</li> <li>● 판매, 고객센터, 영업 등 기업경영의 실무까지도 직접 수행하는 대표의 보완자 역할과 헌신</li> <li>●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화합, 밸런스 중시 기업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기반 연구소기업으로서 지역 혁신생태계 및 공공 기술기반 창업지원조직의 전폭적 지원의 수혜</li> <li>●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 차원의 위험 인식 및 창업에 대한 시장 차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신중한 준비과정</li> </ul>
구분	핀다 이혜민 대표 (핀테크)	시지온 김미균 대표 (소셜벤처)
설립년도	2015년	2011년(법인전환일 기준)
제품/서비스	모바일 기반 금융상품 비교 및 개인추천 서비스	의료 다중진단, 현장진단, 자가진단 기기
주요실적	28,644개 금융상품 비교, 투자유치 45억원(시리즈A)	1,335개 고객사, 투자유치 10억원('15)
창업동기 /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상품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와 정보비대칭 문제</li> <li>● 연쇄 창업 경험으로 인한 금융시장 문제해결 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대중의 SNS 확산으로 온라인 악플에 대한 유명 연예인 자살 등 사회적 문제 발생</li> </ul>
사업모델 /시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대출, P2P대출, 투자, 적금, 주택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안내 및 비교 서비스 제공</li> <li>● 사용자가 성별, 연령, 수입, 직업, 주거형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자 수, 리뷰 수, 평점, 금리 등을 기준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상품 추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 로그인을 통해 언론기사 등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면서 SNS 플랫폼에 댓글이 기록으로 남는 소셜 댓글 플랫폼 '라이브리(LiveRe)' 운영</li> <li>● SNS 플랫폼에 사용자의 기사 댓글이 공개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책임성이 부여됨</li> </ul>
기업가정신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및 이전 창업경험에서 여성과 남성의 급여차이,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경험하고, 연쇄창업을 통해 여성창업가의 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li> <li>●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경험하지 못한 영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하는 것을 즐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학부생으로서의 창업환경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자신이 실행가능한 역량과 범위의 문제해결에 노력</li> <li>● 사람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이롭게 하는 사업 모델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사업기획으로 연결</li> <li>●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열정을 가진 구성원을 고용</li> </ul>

자료: 연구진 작성



## ■ 사례 1: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e-커머스/푸드테크)

### ●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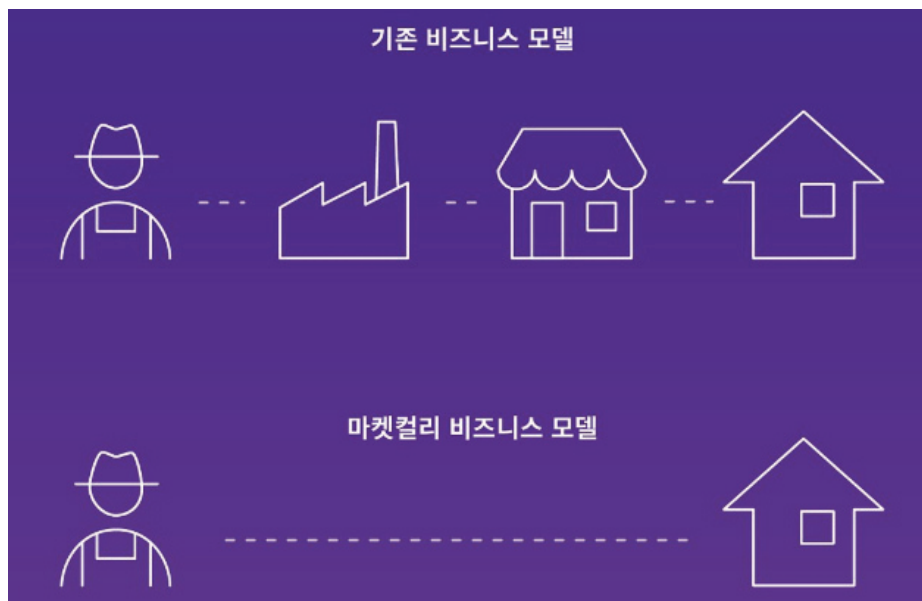
- 창업/대표자: 김슬아, 박길남 공동창업자
- 설립년도: 2015년
- 창업업종 및 서비스: 농수산물 및 식품, 생활용품 판매·새벽배송 서비스 ‘마켓컬리’
- 비전/미션: ‘Farm to Table’,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맛있는 삶을 살게 하자(생산자·소비자까지 모두 잘사는 유통업체)
- 주요 실적: 매출 1,571억원(2018년 기준)(2019년 3배이상 성장예상), 회원수 300만+
- 투자유치 실적: 세쿼이어캐피탈, 힐하우스캐피탈 등 1,350억원(시리즈D)

### ● 창업동기 및 문제의식

- 골드만삭스, 맥킨지, 싱가포르 테마섹, 베인앤컴퍼니 등 글로벌 투자은행 및 컨설팅 기업 근무 경험을 통한 비즈니스 및 소비재 시장 분석 노하우 보유
-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으로 베인앤컴퍼니 근무 시절 맛집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유기농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먹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인식을 갖게 됨

### ● 사업모델 및 시장전략

- 양질의 식재료를 도·소매상, 대형 유통업체 등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빠르고 신선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Farm-to-Table’) 신선제품 판매·서비스 플랫폼 구축([그림 29] 참조)



자료: 코리아비즈니스리뷰(2019), '[카드뉴스] 마켓컬리 경영사례분석'

[그림 29] 마켓컬리의 사업모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에서는 밤 11시까지 주문이 완료된 상품을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배송하는 '샛별배송(새벽배송)' 시스템을 구축

#### ● 사업모델의 혁신성 및 차별성

- 고품질의 식자재 및 상품 판매를 위해 상품 기획자(MD)의 산지방문 및 생산과정 검토 등의 상품 발굴 노력과 함께, 매주 상품위원회를 열어 MD를 비롯한 마케팅, 고객센터 부능 직원들이 함께 상품 출시 여부를 최종 결정
- 신선 식자재의 골든타임을 수확 후 24시간으로 계산해 전날 주문 상품을 익일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배송하는 샛별배송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고안하였으며(Kurly Fresh Solution), 온라인업계 최초로 식품 전용 냉장/냉동 창고를 가동하고 냉장/냉동 차량을 통해 소비자 문앞까지 배송하는 'Full Cold Chain System'을 구축
- 빅데이터·머신러닝 분석 기반 수요예측을 통해 생산자에게 상품을 직거래·직매입 함으로써 폐기율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자들과의 견고한 신뢰관계를 구축

※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계의 평균 폐기율이 2~3%인데 반해, 마켓컬리는 1% 수준

#### ● 여성 기업가정신 특성 및 성공요인

- 김슬아 대표는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서 생활하면서 매일 장을 본다는 것이 어렵고 현장조사를 통해 같은 고민을 가진 주부 및 워킹맘들이 많다는 것에 사업기회를 발견
- 1인 가구, 젊은 여성 및 육아부담을 가진 주부들의 신선식품 선호를 간파하고, 유통업계 최초로 수도권 지역 새벽시간 직배송 체계를 구축, 이후 대기업 및 유통판매업체들의 유사한 배송 서비스의 출시·확대를 선도함
- 소비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식재료를 중간 유통과정 없이 빠르게 판매하고 싶어하는 생산자에게 직거래·직매입을 통해 상품을 수급받고,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상품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
-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역대연봉에도 배울 것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취미인 '먹거리'에 관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하는 여성창업가로서의 당찬 이미지
- 기업규모가 급격히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고객응대, 영업 등 기업경영의 각 부문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발벗고 나서는 '보완자(Filler)' 역할, 구성원들로부터 '대표'가 아닌 '슬아님', '소피' 등으로 불리는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화합과 밸런스를 중시하는 수평적 리더십 보유<sup>1)</sup>
- (샛별배송, 직매입 등 초기 고정비용 지출로 인해 고객 및 매출의 증가에 비례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순손실 규모에 대해) 현재의 매출 및 이익에 급급하기보다 매일매일 풀어야 하는 경영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집중

1) 중앙일보(2020. 1. 15.), '[권혁주의 비즈니스 현장에 묻다 적자? 10년 뒤 1등 되려고 투자하는 것'



## ■ 사례 2: 수젠텍 손미진 대표 (바이오테크)

### ● 기업 개요

- 창업/대표자: 손미진
- 설립년도: 2011년
- 창업업종 및 서비스: 의료 다중진단(Multi-BLOT), 현장진단(POCT), 자가진단 기기
- 비전/미션: 바이오-나노-IT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체외진단 시대를 열다
- 주요 실적: 매출 54.5억원(2018년 기준), 직원 수 101명(2019년 기준)
- 투자유치 실적: 코넥스 상장(2016.11.), 코스닥 이전상장(2019.5.)

### ● 창업동기 및 문제의식

- 손미진 대표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G생명과학 근무시절, 20년 이상 체외진단 연구에 매진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진단’ 분야의 ‘신약개발’ 이상의 성장가능성을 확신
-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진단 및 예방, 모니터링으로 초점 이동)
- 대표와 ETRI의 바이오(BT)/나노(NT) 기술과 정보기술(IT)의 결합 기반 질병진단 관련 연구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비쿼터스 바이오칩 리더기’ 기술이 개발되면서, 체외진단 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공공기술출자 방식)의 기술기반이 마련됨

### ● 사업모델 및 시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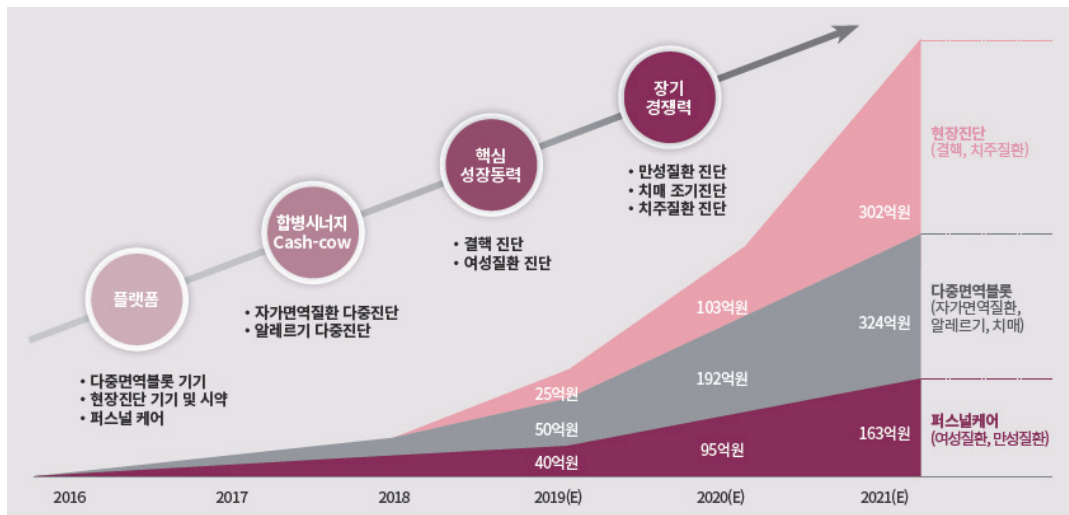
- 수젠텍은 체외진단 진입을 위해 ‘무엇을 진단하는가(What)?’와 ‘어떻게 진단하는가(How)?’의 두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 바이오마커와 진단플랫폼을 두 축으로 하는 기술·제품개발 및 시장전략을 수립([그림 30] 참조)



자료: 수젠텍 IR자료(2019), 'Smart-Ubiquitous GENe TECHNOlogy'

[그림 30] 수젠텍의 체외진단기기 시장전략 - 바이오마커와 분석플랫폼

- 이에 따라, 수젠텍은 대형병원 대상의 다중진단, 중소형병원 대상의 현장진단, 개인사용자 대상의 자가진단의 3가지 진단 플랫폼에서,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치매, 결핵, 여성질환 등 각각의 주요 분석대상 질병을 설정하고 해당 진단제품을 개발
- 사업모델의 혁신성 및 차별성
  - 단백질 등의 비유전자 진단기법을 적용, 바이오마커 구조 분석, 항체 선별, 나노입자 분석 등의 BT/NT역량에 더하여 LED/PD를 이용한 광학 검출, 독자적 광학배열 및 알고리즘, 바이오센서와 스마트폰 연동 및 센서정보 인식 등 IT역량을 보유함으로써, 초소형, 다중, 자동화 진단기기를 개발하여 개인 맞춤형 진단 서비스를 제공
  - 수젠텍은 진단의 대상인 다양한 ‘질병군’, 병원, 개인 등 ‘고객군’을 구분하여, ‘플랫폼 구축 - 합병을 통한 캐쉬카우(Cash-cow) 확보 - 핵심 성장동력 구축 - 장기 경쟁력 확보’의 단계별 사업전략을 수립·실행(그림 31 참조)



자료: 수젠텍 IR자료(2019), 'Smart-Ubiquitous GENe TECHNOLOGY'

[그림 31] 수젠텍의 제품-시장 다변화 및 경쟁력 확보 전략

- 여성 기업가정신 특성 및 성공요인
  - 바이오기술 기반 연구소기업 대표주자로서 대덕연구단지로 대표되는 지역 혁신생태계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술사업화 관련 기관(대전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으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원 효과
  - 진단분야에 대한 높은 기술 이해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 차원의 위험 회피와 진단분야 창업에 대한 시장 차원의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소요
  - 연구소기업으로서의 성공사례 부족 및 지원제도 수립에 따른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 시뮬레이션의 부재로 연구소기업으로서의 성장모델 정립과 향후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애로가 존재





### ■ 사례 3: 핀다 이혜민 대표 (핀테크)

#### ●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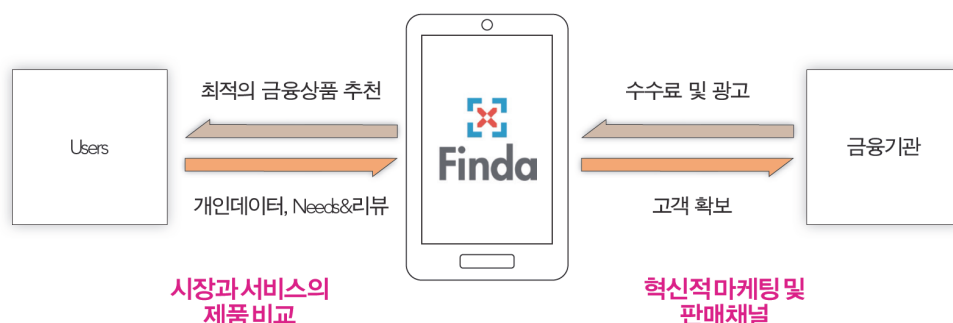
- 창업/대표자: 이혜민, 박흥민 공동창업자
- 설립년도: 2015년
- 창업업종 및 서비스: 핀테크 활용 모바일 기반 금융상품 비교 및 개인추천 플랫폼
- 비전/미션: 금융정보의 혜택을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제공
- 주요 실적: 28,644개의 비교 금융상품, 2,148개의 금융상품 리뷰
- 투자유치 실적: 퓨처플레이 등 12억원(프리시리즈A), 인터베스트 등 45억원(시리즈A)

#### ● 창업동기 및 문제의식

- 금융시장은 보수적인 산업특성 상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기반 쇼핑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수요 행동양식과 트렌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수요 및 공급채널의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gap)(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
- 연쇄창업 경험을 가진 대표의 이전 창업시절, 결혼 및 창업자금 마련 등으로 대출상담을 받으러 은행을 방문하면서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획득 및 상품비교의 어려움과 개인정보의 노출 등 대면상담의 부담 등을 인식, 금융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결심
- 이전 창업에서의 사업목표에 대한 모호성과 지분문제, 무엇보다 고객의 불편함과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사업모델 및 시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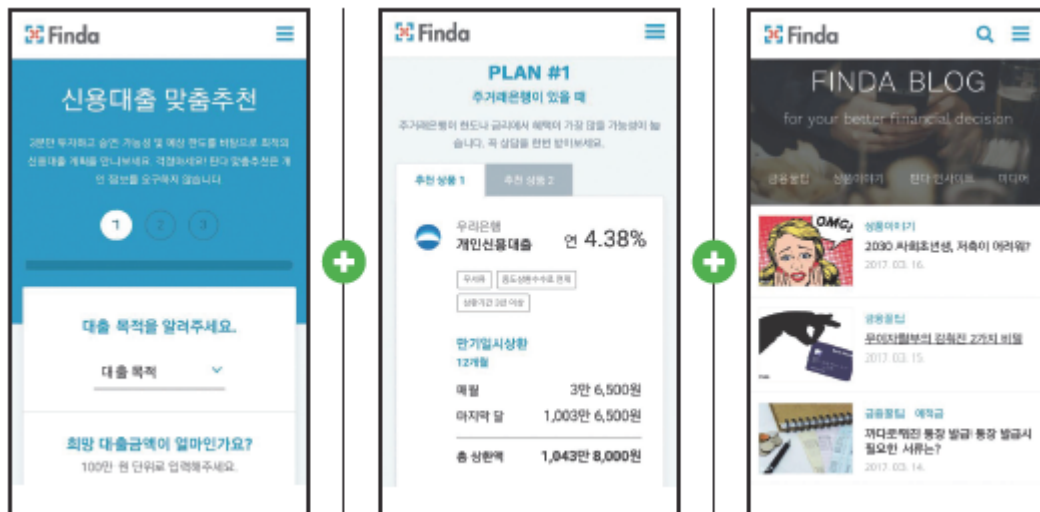
- 핀다 플랫폼에서는 개인의 신용등급 조회나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도 신용대출, P2P대출, 투자, 적금, 주택대출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안내 및 비교 서비스 제공
- 사용자가 성별, 연령, 수입, 직업, 주거래은행 등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자 수, 리뷰의 수, 평점, 금리 등을 기준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한국의 Young Innovators', p. 183

[그림 32] 핀다의 사업모델

- 사용자들이 핀다에서 비교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 추천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 시 해당 금융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보유
- 중국의 금융포털사이트 스타트업인 'Rong360'을 벤치마킹하여 광고를 통한 수익모델을 추진 중이나, 사용자들이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에 개인맞춤형 정보나 혹은 광고이지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도입 추진 중
- 사업모델의 혁신성 및 차별성
  - 금융상품 정보제공 및 비교를 위해 금융상품 요소값을 표준화하여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개발, 이를 활용하여 소비자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응답만으로 자신에 최적화된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
  -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 사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면서도 개인에 최적화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한국의 Young Innovators', p. 185

[그림 33] 핀다의 서비스 활용방식

- 여성 기업가정신 특성 및 성공요인
  - 대기업 및 창업경험에서 여성과 남성의 급여차이,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의 남성 위주의 의견 반영 구조 등의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경험
  -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며,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이 여성창업가의 한계 극복에 도움
  -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문제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해결책으로서의 사업모델 정립, 혁신자본 조달을 위한 투자자들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이 핵심 성공요인
  - 연쇄창업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계에서 여성창업가로서의 대표 이미지 구축



## ■ 사례 4: 시지온 김미균 대표 (소셜벤처)

### ● 기업 개요

- 창업/대표자: 김미균(김범진 공동창업)
- 설립년도: 2011년(법인전환일 기준)
- 창업업종 및 서비스: 소셜 댓글 플랫폼 ‘라이브리(LiveRe)’
- 비전/미션: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 모든 것의 커뮤니케이션, 문명을 이끌자
- 주요 실적: 44,940개의 설치사이트, 1,335개 고객사, 31,936,440명의 누적 사용자, 36,942,991개의 누적 댓글
- 투자유치 실적: 포스코기술투자 10억원(2015년)

### ● 창업동기 및 문제의식

- 온라인 악플로 인한 유명 연예인들 자살 사건과 함께, 일반 대중도 SNS로 자신만의 소통 채널을 가지게 되면서 악플, 사이버테러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문제 발생
- 하버드의 로렌드 레식 교수가 주창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 시장, 규범, 구조의 4가지 접근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이나 시장보다 ‘인터페이스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
- SNS 로그인으로 댓글작성 주체를 드러내고, 댓글을 SNS로 동시 전송함으로써 스스로 책임있는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사업으로 실현

### ● 사업모델 및 시장전략

- 시지온의 ‘라이브리(LiveRe)’는 SNS 로그인을 통해서 언론기사 등 댓글을 작성하면서 본인이 가입한 SNS 플랫폼 상에 본인의 댓글이 기록으로 남게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자신이 남긴 댓글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평판이나 정체성과 댓글이 연관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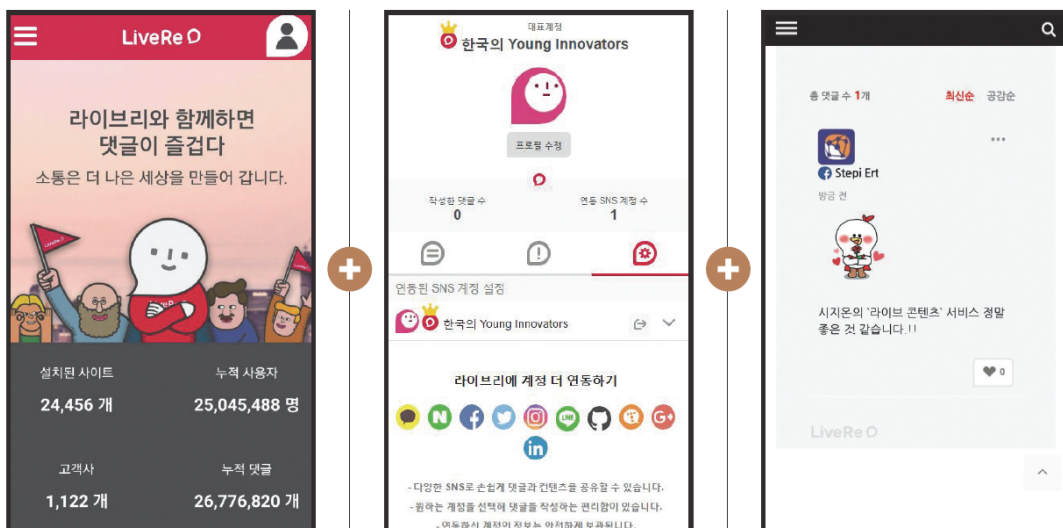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한국의 Young Innovators', p. 309

[그림 34] 시지온(라이브리)의 사업모델



- 기업, 언론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사를 고객으로 보유하여 고객들이 자사의 댓글 시스템을 라이브리 서비스로 대체하고 월간, 혹은 연간 사용료를 지불받는 수익모델
- 사업모델의 혁신성 및 차별성
  - 가장 큰 사업모델의 혁신은 온라인 댓글에 댓글 입력자(사용자)의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의 댓글이 공유됨으로써 글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 라이브리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욕설, 비방, 광고성 댓글의 ‘도배’를 방지하고, 댓글 창에서의 자유로운 사용자의 의견 교류와 소통이 가능해짐
  - ‘소셜댓글’ 서비스는 라이브리 도입 기업 고객사에게 또 다른 마케팅 툴을 제공함, 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댓글을 통해 확인하여 피드백 채널로 활용하고, 온라인 기반 고객의 충성도 향상도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한국의 Young Innovators’, p. 311

[그림 35] 시지온(라이브리)의 서비스 활용방식

- 여성 기업가정신 특성 및 성공요인
  - 여성 학부생으로서의 창업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너무 큰 주제와 사업 분야가 아닌 자신이 실행가능한 범위의 역량에 맞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창업가의 학부 시절 전공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기회 포착
  - 사람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이롭게 하는 사업모델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가치를 제공하는 결과로 발전됨
  - 사업의 높은 수익정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열정적이고 절실함을 가진 사람들을 기업 구성원으로 뽑고자 노력함



## 6. 여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 기회요인과 시사점

### ■ 기회요인 1: 여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기업가에 대한 사회·문화 차원의 인식 전환

- 여성은 창업에 대한 관심이나 의향은 높으나, 남성에 비해 창업에 적합한 특성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창업실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은 남성과 동등한 수준이나,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가적 역량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기업가적 지향성 및 기업가적 역량과 같은 내면적 기업가정신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경력단절 이후 40대, 여성 주부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낮으며, 창업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성, 기회포착 역량이 낮아 이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정책이 요구됨
  - 반대로 20대~30대 초반 청년 여성층의 높은 창업의향, 사회공감 능력, 글로벌 마인드, 개인적 역량인식을 바탕으로, 손쉬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 필요
- 여성 창업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수준과 여성 창업의 성공사례 부재
  -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안전망 부재 등으로 여성의 창업활동에 대한 위험회피 성향이 여전하며 사회적으로도 여성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음
  - 남성에 비해 여성 창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없어 역할모형으로서의 기능 부재

### ■ 정책적 시사점

- 여성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 여성 창업 활성화와 별개로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여성의 기업가정신 및 창의성, 기초적 경제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중이 공감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망한 창업기회가 형성됨을 감안, 문제인식 및 공감능력, 문제해결역량을 높이는 교육 서비스 제공
- 여성 창업활동 및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 확산
  - 중앙정부, 지자체 고위 정책의사결정자들의 여성 창업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메시지 전파,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의지 필요
- 여성 창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역할모형 개발
  - 유망·우수 여성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전주기 차원의 밀착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대표 여성 창업 성공사례 개발
  - 여성 창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출판물, TV, 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역할모형의 전파·확산 노력

## ■ 기회요인 2: 기업가정신을 갖춘 우수 여성 창업인력 양성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전문분야에서의 사회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여성인력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대학진학률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과 함께 전문·기술·행정 분야의 여성 직무역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여성의 이공계 분야에서의 진학률과 대학원 진학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여성 우수인력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낮아 창업 활동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며, 이는 여성 창업이 생계형·서비스업 분야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출산, 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우수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복귀에 애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뛰어난 사업역량을 갖춘 여성인력에게 창업이 대안으로 부각

## ■ 정책적 시사점

- 우수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확대
  - 이공계 등 창업 아이디어 및 잠재력을 갖춘 우수 여성인력에 대한 체계화된 기술 창업 관련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수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가적 지향성을 높이는 기초 교육과 함께, 혁신적 사고, 문제인식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역량 발굴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 전 자신의 창업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툴(Tool) 개발
  -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경력단절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프로세스 및 경영 실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창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우수 여성인력 대상의 창업인턴 프로그램 운영
  - 예비 창업자의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창업실무 경험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창업기업에 취업하여 선행 현장학습하는 창업인턴 프로그램 운영
  - 고급인력을 낙후지역의 창업기업에 인턴십으로 파견,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창업을 지원하는 미국의 'Venture for America'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회문제와 연결된 지역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여성의 인턴십 기회 제공



### ■ 기획요인 3: 여성 창업 유망분야 및 모델 개발

- 여성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와 소비시장 확대로 여성 고유의 섬세한 감성이 창업분야 및 사업 아이템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
  - 미혼여성은 패션, 미용, 쇼핑, 여행 등, 기혼여성은 육아, 교육, 가사 등의 절대적인 구매영향력을 보유한 사업 대상 시장이 존재
  -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와 만족감, 따뜻하면서 감성적인 콘텐츠 제작역량, 경험에 기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특성 등의 제공에 있어 여성 우위가 뚜렷
-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사업기회가 풍부하고 소비트렌드의 변화가 빠름
  - 서비스업, 특히 숙박 및 음식점 등 생활 서비스업이나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와 같은 공익 서비스업에서 여성 창업활동이 활발함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비중이 감소하고,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규모 생활제품 및 서비스 관련 사업기회 증대
- 사회, 경제, 환경, 안전, 보건, 삶의 질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 차원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인 여성들의 문제해결 의지와 역량이 사업기회로 연결되는데 유리함(사회서비스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 ■ 정책적 시사점

- 생활경험 기반 여성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 여성 창업이 기존의 음식 및 숙박, 도·소매 판매업 등 단순 서비스업에서 사회보전 분야의 전문 서비스, 생활물품 관련 제조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
  - 생활 양식 및 소비자 수요에 대한 이해는 높으나 제조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여성창업가의 생활경험 기반 제조·판매업 진입을 돕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사회문제 해결형 여성창업 기회 발굴 및 사업모델의 개발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창업가 육성 정책 마련
  - 지역사회의 주거,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생활 밀접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주도형 사회적 경제 기업 설립 모델 개발
- 여성 창업 유망분야 발굴 및 창업 표준 모델의 개발
  - 전통적인 여성 친화산업에 대한 산업동향 및 사업기회 모니터링과 동시에, 기술+감성, 제조+서비스 등 융합 관점에서의 여성 창업 신규 유망분야 발굴
  - 유망 여성 창업분야에서의 사업 아이디어를 창업활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가의 기술, 역량,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 모델의 개발·전파

## ■ 기회요인 4: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생태계 구축

- 여성 창업기업은 사업모델 개발과 시장경쟁 환경 측면에서 남성기업에 비해 어려움을 호소
  - 여성은 수요부족이나 판로부족과 같은 초기 진입기업으로의 애로보다는 가격경쟁력 하락과 상품 및 고객관리 곤란 등의 성숙시장에서의 기업으로의 애로를 보다 크게 느끼고 있어 여성 창업기업의 사업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이 느끼는 경영상 불리한 점에서 일·가정 양립의 부담, 남성중심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적응 곤란과 함께 남성위주의 네트워크 참여 한계가 꼽힘
  - 기업문화에서 특히 주류가 되는 남성기업인들은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들 간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
  - 여성기업인들 스스로가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관리 및 구축에 소극적인 측면도 존재

## ■ 정책적 시사점

- 여성 창업기업 전담 보육조직 등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여성 창업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독창적이고 잠재력 있는 사업모델 개발 및 창업 활동에 있어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 밀착 지원 프로그램 및 조직 필요
  - 여성 창업기업의 창업 활동과 초기 기업경영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의 밀착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보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주목, 여성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성 전담 액셀러레이터 설립 지원(또는 TIPS 프로그램의 여성특화 트랙 등의 개발 필요)
- 여성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 여성 창업자들의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협업·네트워킹을 위한 공용 공간인 여성 전담 창업보육센터 및 코워킹스페이스 지원·운영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의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의 공용 공간 및 시설(예: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창업 활동 활성화
- 여성 창업자의 제휴 파트너 선정 및 외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여성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에서의 외부 협력 및 제휴 활동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파트너 발굴 및 협상, 계약, 협력 활동 수행 전반에 있어서의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 창업자의 창업 및 경영 상의 정보 공유 및 애로사항의 효과적인 청취를 위한 공식 협의체 설립·운영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한국의 Young Innovators'.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2019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 김선우, 김영환, 이정우, 서지영, 손하늬, 김석현, 오지선, 김동현, 손준호 & 김홍숙 (2016). '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양희 & 김홍숙 (2000). '기업 내 남녀관리자의 리더십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환 & 오지선 (2017). '여성 기업가정신 증진 및 창업 활성화 방안', STEPI Insight, 제205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배종태 & 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109-128.
-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인력다양성 확대와 기업의 대응 - 여성, 외국인, 장애인,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 CEO Information, 제492호.
- 수젠텍 IR자료(2019), 'Smart-Ubiquitous GENE TEChnology'.
- 오지선 & 김영환 (2016). '한국 기혼여성창업가의 경영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가정과 일 병행전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8(4), 27-52.
- 이지선, 김성근 & 이정민 (2010). '시장을 움직이는 힘, 여성소비자', KT경제경영연구소.
-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 '2018 여성기업 관련통계'.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2018), '2017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2019),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 중앙일보(2020. 1. 15.), '[권혁주의 비즈니스 현장에 묻대] 적자? 10년 뒤 1등 되려고 투자하는 것'.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2019). '[카드뉴스] 마켓컬리 경영사례분석'.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기업생멸행정통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창업기업동향 - 신설법인동향'.
- Ahl, H. J. (2006). Why research on women entrepreneurs needs new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5), 595-621.
- Bahn, S. S., Park, J. H., & Seo, S. G. (2009).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upport of business incubator center on corporate performance. Productivity Review, 23(2), 215-234.

- Bird, B., & Brush, C. (2002). A gendered perspective on organizational cre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6(3), 41-66.
- Brush, C. G. (1986). *The woman entrepreneur: Starting, financing, and managing a successful new busines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 Brush, C. G. (1992).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4), 5-30.
- Burke, A. E., Fitzroy, F. R., & Nolan, M. A. (2002). Self-employment wealth and job creation: The roles of gender, non-pecuniary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ability. *Small Business Economics*, 19(3), 255-270.
- Buttner, E. H., & Moore, D. P. (1997). Women's organizational exodus to entrepreneurship: Self-reported motivations and correlates with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5(1), 34-46.
- Hisrich, R. D., & Brush, C. (1986). Characteristics of the minority entrepreneur.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4, 1-8.
- Loden, M. (1985). *Feminine leadership or how to succeed in business without being one of the boys*. New York: Times Books.
- Mayoux, L. (2001). *Job, gender and small enterprises: Getting the policy environment right*, SEED WP 15. Geneva: ILO.
- Morris, M. H., Miyasaki, N. N., Watters, C. E., & Coombes, S. M. (2006). The dilemma of growth: Understanding venture size choices of women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4(2), 221-244.
- OECD (2004). *Women's entrepreneurship: Issues and policies*.
-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43-462.
- Tillmar, M. (2007). Gendered small-business assistance: Lessons from a Swedish project.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1(2), 84-99.





## II

# 여성창업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김보례(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연구조사팀장)



## 1. 서론<sup>1)</sup>

- '20년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29.8%(3,336억원) 증가한 1조 4,517억원으로 확정되는<sup>2)</sup> 등 경제성장을 위한 해결책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창업지원사업은 16개 부처, 43개 기관에서 90개 사업을 수행 중이며, 이는 '19년 대비 2개 부처, 21개 사업이 추가된 것임
- 지원사업의 수행 부처는 중기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행안부, 고용부, 농식품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문체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환경부, 기상청임<sup>3)</sup>
  - 중기부의 여성 전용 지원사업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보육실) 운영', '여성벤처펀드'를 포함하면 총 92개 사업임

〈표 1〉 창업지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개)

순위	소관부처	예산		사업수		전담기관수	
		'19	'20	'19	'20	'19	'20
1	중기부	9,975.6	12,610.8	36	41	9	11
2	과기정통부	152.4	489.6	8	10	5	8
3	행안부	362.2	355	1	1	1	1
4	고용부	280.6	315.9	1	1	1	1
5	농식품부	73.7	159.9	4	9	3	4
6	특허청	115.5	152	4	4	2	2
7	농촌진흥청	0	116.6	0	1	0	1
8	문체부	110.3	107.2	6	8	5	4
9	해수부	64	62.1	2	2	2	2
10	교육부	22	47.8	2	3	1	2
11	복지부	2.4	46	1	2	1	1
12	국토부	4	22.6	1	3	1	1
13	기재부	9.6	15.15	1	1	1	1
14	법무부	0	8.35	0	1	0	1
15	환경부	0.8	6	1	2	1	2
16	기상청	1.4	1.59	1	1	1	1
합계		11,174.5	14,517	69	90	34	43

주: 중기부 사업 중 여성기업 전용 사업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보육실) 운영', '여성벤처펀드' 제외

자료: 중기부 공고 제2019-1호(2019.1.3.),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기부 공고 제2020-1호(2020.1.2.), 「2020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1) 본 보고서는 김보례·김준길·윤아름·박향기(2019), 「여성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 - 창업기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임
- 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9.8.29.),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편성 -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예산안」.
- 3) 각 부처명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행안부, 고용노동부=고용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해양수산부=해수부, 기획재정부=기재부, 보건복지부=복지부, 국토교통부=국토부, 기획재정부=기재부로 기재하며, 이하 각 부처명은 단축명으로 함

- 여성 창업 비중은 '16년 46.4%에서 '18년 47.0%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그 중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증가속도가 남성보다 높아 여성 창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표 2〉 창업기업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2016	2017		2018	
		기업수	기업수	전년대비 증가율	기업수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 업종	여성	551,682 (46.4)	585,737 (46.6)	6.2	632,073 (47.0)	7.9
	남성	637,829 (53.6)	669,872 (53.4)	5.0	711,543 (53.0)	6.2
기술기반 업종	여성	68,882 (36.2)	73,993 (37.2)	7.4	82,199 (38.8)	11.1
	남성	121,599 (63.8)	124,690 (62.8)	2.5	129,768 (61.2)	4.1

주: 1) 기술기반업종은 OECD와 EU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를 말함

2) ( )는 전체 기업 대비 여성기업의 비율

3) (전년대비 증가율) = (해당연도 기업수 - 전년도 기업수) / (전년도 기업수)

4) 성별이 기타로 분류되는 기업은 제외함

자료: 중기부, 「창업기업동향」, 각년도

- 여성 창업에 대한 지원은 '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이하함)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여성기업법」제5조에 따라 중기부에서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sup>4)</sup>'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에는 여성 창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성기업 육성사업 내 여성창업지원은 시설/공간, 자금, 컨설팅 제공 등이 있음
-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EU 등에서도 여성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임
  - 미국의 경우에는 1988년 「Women's Business Ownership Act」를 제정하여 자금, 판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시행 중임
  - 캐나다는 '18년도 예산에 '25년까지 여성기업 수를 현재의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여성들의 경제역량 강화사업인 '여성창업 전략(Women Entrepreneurship Strategy, WES)'에 20억달러 규모를 투자함<sup>5)</sup>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11년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접근 기회와 정보제공 등에 대한 정책 관련 결의안을 통과함<sup>6)</sup>

4) 사업명은 여성기업 육성사업임

5) OECD(2019),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19", p. 285.



## ■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함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sup>7)</sup>

- 금융위기 이후 심각해진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이 하나의 잠재적 동인으로 인식되어 관심이 증대됨<sup>8)</sup>
- OECD, 유럽 등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OECD, EC에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고등교육단계의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학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정책에 포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 여성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성별에 따라 기업가정신에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sup>9)</sup>

- S. Roland Xavier(2012)는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한 153명의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이유, 개인적·기업가적 성향, 직장인에서 사업주로 전환하는 기간에 직면한 도전 등에 초점을 두고 여성기업인들의 성향에 대하여 조사함. 그 결과 여성기업인들의 강점은 자신감,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계획수립능력, 경영지식, 업무상의 균형능력, 기업경영의 유연성 등이라고 보았음
- N. Maniyalath(2016)에 의하면 여성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여성기업인들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양성평등 달성에 도움이 되며, 빈곤률이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임
- Maria(2010)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여성기업가정신의 역할이 경제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함을 제시함
- 문숙재·최자경(2001)은 여성창업가의 개인적인 성향이 기업성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봄<sup>10)</sup>
- 지상철·황보운(2018)은 212명의 여성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창업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그 정도는 미미함

## ■ 여성창업 지원정책 수립 시 여성 기업가적 성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음<sup>11)</sup>

6) Library of the European Parliament(2013), 「Women's Entrepreneurship in the EU」.

7) 권순만,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덕목, 기업가정신」, 『시사저널』 1582호(2020-02-08).

8) 김문희,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THE HRD REVIEW(글로벌 리포트)』, 2016년 05월, p.105.

9) 김보례·윤아름(2017), 「여성기업가정신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 여성기업대표들을 중심으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0) 문숙재·최자경(2001), 「여성창업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5권 제1호.

11) 여성창업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여성창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임

-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들을 분석하여 여성의 기업가적 성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창업지원제도는 여성뿐 아니라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창업지원제도’와 여성만을 대상으로 ‘여성창업지원제도’로 나누어 살펴봄
  - 분석은 여성기업들이 창업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가정신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가승인통계인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여성경제연구소에서 '19년에 시행한 여성창업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살펴봄



## 2. 창업지원제도

### 1) 일반 창업지원제도

- 정부 창업지원 통합공고 기준으로 창업지원분야는 ① 사업화, ② R&D, ③ 창업교육, ④ 시설공간, ⑤ 멘토링·컨설팅, ⑥ 행사·네트워크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음

- 지원사업 중 사업화 분야의 지원사업 수는 35개로 가장 많고 예산도 7,315억원으로 전체 창업지원예산의 50.4%를 차지함

※ 분야별 지원사업 수 및 예산: ① 사업화: 35개, 7,315억원 ② 연구개발: 8개, 5,126억원, ③ 창업교육: 12개, 535.4억원 ④ 시설공간: 16개, 1,259억원 ⑤ 멘토링컨설팅: 13개, 217억원, ⑥ 행사네트워크: 6개, 64.4억원

- 16개 부처 중 중기부가 수행 중인 사업이 총 41개로 가장 많고 다양함

- 통합공고 내 여성창업지원제도는 중기부의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과 ‘여성창업경진대회’가 포함되어 있음

〈표 3〉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분야	사업명	'19 예산	'20 예산	지원내용
1	사업화	창업도약패키지	840	1,275	① 사업화지원(최대 3억원) ② 성장촉진 프로그램(제품개선, 디자인개선, 수출지원, 유통연계)
2		예비창업패키지	1,010.5	1,114	①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② 창업교육 및 멘토링 ③ 네트워킹,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3		초기창업패키지	1,027	1,075	① 사업화자금 (고급기술 및 유망 창업아이템 보유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 자금) ② 초기창업 특화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초기기업에 아이템 실증검증, 투자연계, 멘토링 등)
4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922.2	932	①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준비공간 제공 ② 사업화지원(최대 1억원) ③ 정책자금 등 후속연계 지원
5		민관공동창업자 발굴 육성(TIPS)	247	544	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②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
6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3대 신산업분야)	-	400	① 기술·경영 등 밀착지원 ② R&D, 투·융자 연계지원
7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100	200	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② 사업화 실증 최대 2억 ③ R&D자금 연계 최대 4억
8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160	192	① 세무·회계(기장대행수수료 등) ② 기술보호(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구분	분야	사업명	'19 예산	'20 예산	지원내용
9		재도전 성공패키지	178	175	① 재창업교육 ② 멘토링 ③ 사업화 자금 ④ 입주지원 ⑤ 네트워킹
10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108	① 글로벌 진출 준비 지원 ② 사업화지원(최대 2억원) ③ 현지화 액셀러레이팅 지원
11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소재·부품·장비)	-	50	① 사업화지원
12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	44	① 비즈니스모델 등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
13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28	34	①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팅 및 해외진출자금 20백만원 - 지원국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이스라엘
14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12	13.1	① 사업화지원(최대 2천만원)
15		장애인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5.6	5.6	① 사업화지원(최대 3천만원)
16	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733	4,780	① (디딤돌) 최대 1.5억원 이내 ② (전략형) 최대 4억원 이내 ③ (TIPS) 최대 5억원 이내
17	창업 교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02.1	166	① 창업, 제품경영체험 교육 ② 상품화 등 사업 지원
18		청소년 비즈쿨	76.6	66.7	①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및 전문가 특강 지원 등 ②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19		실전창업교육	57	48	① 창업실습교육 (블렌디드 러닝, Build-up 프로그램) ② 시장검증 (고객반응조사, 비즈니스모델 검증 및 최소요건제품 제작 비용 지원 등)
20		멘토링플랫폼 운영 지원	-	46.3	① 기술·경영 밀착지원 ② R&D, 투·융자 연계
21		메이커 문화 확산	61.8	44.4	① 메이커 창작활동 ② 동아리 ③ 이동형 교육 ④ 메이커 행사 등
22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9.7	9.7	① 온라인교육 및 특화교육 ② 창업멘토링 지원
23		대학기업가센터	18	6	① 창업관련 교육계획 수립·운영 등 총괄기능 강화 지원 ② 교재, 모듈 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③ Cash class 등 최신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창업 전공 강좌 운영지원 등
24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379.7	398	① 창업지원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 ② 원스톱서비스 (창업 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 등 컨설팅서비스)
25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285	331	① 전문점 (창업 연계형 전문창작 공간) ② 일반점 (생활밀착형 창작 활동 공간)
26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141.7	127	① 사업공간 입주 지원 ② 컨설팅, 보육지원



구분	분야	사업명	'19 예산	'20 예산	지원내용
27	시설 공간 보육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	80	① 해외진출준비 지원 ② 해외 업무공간,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IR, 창업경진 대회 참가, 현지 네트워킹, 마케팅·판로개척 등 지원 ③ 투자유치, 현지 법인설립 등 후속지원
28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53	79.7	① (예비)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전문가 자 문 및 제품,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29		판교밸리창업존 운영	61.6	61.6	① 공간 지원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 ② 인프라 지원 (통번역, 시제품 제작 및 모바일 기기 테스트) ③ 창업지원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글로벌지원, IR, 마케팅 및 네트워킹 등)
3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48.8	44.6	① 발굴(예비)퇴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 (실전창업 교육과정 운영 등) ② 공간 및 보육지원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 제공 및 사업화 연계지원 등)
31		광주 스타트업 캠프	-	35.5	① 사업공간 입주 지원 ② 컨설팅, 보육 지원
32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	-	25	① 창업공간 등 제공 ② 교육, 컨설팅 등 제공
33					
34		소셜벤처 육성	19	17	① 소셜벤처 BM재설계 등 액셀러레이팅 ② 창업공간, 네트워킹, 투자유치 연계 등 지원
35		스타트업 파크	125.7	10	①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지원
36		장애인가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6.5	6.5	① 창업공간 등 제공 ② 교육, 컨설팅 등 제공
37	멘토링, 컨설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19	6.4	① 성공불 용자(최대 2천만원) 지원 ② 성실실때시 상환 면제
38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5.4	5.4	① 밀착 멘토링 지원
39	행사 네트 워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30	25.5	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한 스케일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40		도전! K-스타트업	28	23.5	① 경진대회 왕중왕전 수상자 대상 상금·상장 ② 통합본선 진출팀 대상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
41		여성창업경진대회	0.9	0.9	① 입상자 시상 및 포상(최대 1천만원 이내) ②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42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0.5	0.55	① 입상자 시상 및 포상

주: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중기부, 국토부, 교육부가 모두 소관부처에 해당하여 중기부 사업에서는 제외함

자료: 중기부 공고 제2019-1호(2019.1.3.),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기부 공고 제2020-1호(2020.1.2.), 「2020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 그러나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수혜율은 낮은 수준임

-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여성창업지원사업을 제외한 사업에서의 여성수혜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혜자 수와 예산 수준이 남성보다 낮음
  - 성별 지원사업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수혜비율이 38.8%<sup>12)</sup>를 넘지 못하는 사업은 14개로 전체 창업지원사업(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중 약 74%를 차지함

12) 창업기업동향 결과 기술기반업종에서의 '18년 기준 여성기업 비중이 '38.8%이므로 이 비율을 기준으로 함



〈표 4〉 성별 창업지원제도 수혜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담당 부처	예산/기금	수혜자수		예산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기재부	예산	500	400		
				55.6	44.4		
2	콘텐츠산업분야 창작 지원	문광부	예산	109	111	600	600
				49.5	50.5	50.0	50.0
3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농림부	예산	28	72		
				28.0	72.0		
4	사회적기업가 육성	고용부	예산	686	564	10724	8461
				54.9	45.1	55.9	44.1
5	공정·품질기술개발(R&D)	중기부	예산	89	688	5104	39279
				11.5	88.5	11.5	88.5
6	창업기업과제	중기부	예산	185	1040	27992	157385
				15.1	84.9	15.1	84.9
7	장애인기업육성	중기부	예산	58	319		
				15.4	84.6		
8	창업사업화지원	중기부	예산	562	1778	36832	116636
				24.0	76.0	24.0	76.0
9	산학연협력기술개발(R&D)	중기부	예산	157	1091	17574	121904
				12.6	87.4	12.6	87.4
10	창업보육센터지원, BI경쟁력강화지원(리모델링)	중기부	예산	1084	5193		
				17.3	82.7		
11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농진청	예산	52	70	342	458
				42.6	57.4	42.8	57.3
12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특허청	예산	205	1145	1407	7847
				15.2	84.8	15.2	84.8
13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기상청	예산	9	26	41	118
				25.7	74.3	25.8	74.2
14	벤처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과기부	기금	22	102	532	2458
				17.7	82.3	17.8	82.2
15	창업기업자금	중기부	기금	1583	9721	251910	1614090
				14.0	86.0	13.5	86.5
16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	기금	200	800	20446	81784
				20.0	80.0	20.0	80.0
17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중기부	기금	88	996	15343	213657
				8.1	91.9	6.7	93.3
18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기부	기금	174	126	6381	4620
				58.0	42.0	58.0	42.0
19	소상공인지원(융자)	중기부	기금	18145	27560	572093	1030407
				39.7	60.3	35.7	64.3

주: 1) 여성기업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여성수혜율이 100%로 제외

2) ■ 는 여성 수혜율이 38.8%가 넘지 않는 사업

3) □ 는 여성수혜율이 가장 낮은 사업

자료: 대한민국정부(2019), 「2019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 2) 여성창업지원제도

- 여성창업지원은 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② 일반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이 지원할 경우 우대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 여성창업지원은 정부부처(중기부, 특허청)와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이며 여성을 우대하고 있는 사업은 중기부에서 시행 중인 ‘창업성공패키지’ 한 개 사업임
  - 중기부에서 시행 중인 여성창업지원은 「여성기업법」 제5조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창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세부 사업은 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보육실) 운영, ② 여성창업경진대회, ③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④ 여성벤처펀드 총 4개임
  - 특허청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여성발명진흥’이 있음
    - ‘여성발명진흥’은 ‘생활발명코리아’라는 명칭으로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시행 중임
    - 기본적인 사업 목적은 여성 인력들 또는 기업인들의 지식재산권 권리화이고 이를 통한 판로 및 사업화 지원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창업지원사업으로 분류함
  - 중기부의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여성기업이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 가점 0.5점을 부여하고 있음

〈표 5〉 여성창업지원사업 현황

(단위: 명, 억원)

소관부처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산			
				'17년	'18년	'19년	'20년
중기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자를 위해 창업보육시설 등 제공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여성창업기업	19.93	20.85	20.85	31.85
		센터 확장(신규개소 및 이전)		12	10	14	20
	창업경진대회	우수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창업자 발굴·포상	예비창업자 또는 5년 미만 여성창업기업	0.9	0.9	0.9	0.9
	여성벤처활성화	BM개발, 코칭·네트워킹, 사업화 등 지원	예비창업자	6	6	6	6
	여성벤처펀드 <sup>1)</sup>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여성기업 투자자원 확충	여성기업	(100)	(60)	(120)	-
	소계			38.83	37.75	41.75	58.75
특허청	여성발명진흥(생활발명코리아)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아이디어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시제품 제작 비용 등	일반 여성, 여성기업인	13.38	15.20	15.20	16.96

주: 1) 여성벤처펀드는 신규예산은 아니며, 모태펀드 회수재원과 민간출자액으로 '18년은 100억원(정부 60억원 + 민간 40억원), '19년은 추가 200억원(정부 120억원 + 민간 80억원)규모의 펀드를 조성·운용

2)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창업벤처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중기부,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각년도, 특허청, 「세입세출 예산 개요」, 각년도.

■ 정부 부처에서는 시설공간 제공, 대회를 통한 상금, 투자 제공, 멘토링 등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음

〈표 6〉 여성창업지원사업 세부내용(정부부처)

구분		사업내용									
여성기업 종합지원 센터 운영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국 17개 센터 입주기업 및 여성경제인</li><li>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li></ul>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지원시설(회의실, 사무집기, 인터넷, 보안장비 등)</li><li>경영, 회계/세무, 재무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li><li>산업디자인 개발비,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li><li>마케팅 및 판로지원</li><li>중소기업 지원시책·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li><li>성공 여성CEO와의 네트워킹 등</li></ul>									
여성창업 경진대회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팀) 및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li></ul>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상 및 포상 대상(1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2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500만 원 우수상(3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300만 원 장려상(4팀) : 신한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 원(2팀) 우리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 원(2팀) 특별상(2팀) : IBK기업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 원 입상(18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및 상금 각 30만 원</li><li>수상자 지원내용: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BI 및 창업보육, 교육 및 네트워킹, 국내외 판로·마케팅 지원 등</li></ul>									
여성벤처 창업케어 프로그램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유망 벤처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li></ul>									
	지원내용	<table><tr><th>구분</th><th>프로그램</th><th>세부내용</th></tr><tr><td>1단계</td><td>비즈니스 캠프</td><td>·창업아이디어 검증 및 시장성 제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세부 실행전략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plan 전문교육 지원</td></tr><tr><td>2단계</td><td>선배CEO 밀착코칭</td><td>·선배기업CEO 1:1 밀착코칭을 통해 선배CEO의 창업경험 및 노하우 전수, 시장맞춤형 사업계획 구축 지원</td></tr></table>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1단계	비즈니스 캠프	·창업아이디어 검증 및 시장성 제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세부 실행전략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plan 전문교육 지원	2단계	선배CEO 밀착코칭	·선배기업CEO 1:1 밀착코칭을 통해 선배CEO의 창업경험 및 노하우 전수, 시장맞춤형 사업계획 구축 지원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1단계	비즈니스 캠프	·창업아이디어 검증 및 시장성 제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세부 실행전략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plan 전문교육 지원							
2단계	선배CEO 밀착코칭	·선배기업CEO 1:1 밀착코칭을 통해 선배CEO의 창업경험 및 노하우 전수, 시장맞춤형 사업계획 구축 지원									
3단계	사업화 과제해결	·사업화 과제해결에 필요한 샘플제작, 시장분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최대 5백만원) ·우수 창업자 대상 투자유치교육 및 IR지원									
여성벤처 펀드	출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모태펀드 출자예정액(120억), 결정목표액(200억), 모태펀드 출자비율(60%)</li></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가능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여성이 최대주주인 기업</li><li>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경우</li><li>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35% 이상인 경우</li><li>고용노동부 인증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li><li>여성가족부 주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증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li></ul></li></ul>									
여성발명 진흥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반 여성 및 여성기업인</li></ul>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상 및 포상 대통령상 및 상금 1,000만 원 국회의장상 및 상금 200만 원 국무총리상 및 상금 200만원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5명) 특허청장상(2명)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기관장상(16명)</li><li>수상자 지원내용: 전문가 멘토링 제공, 아이디어 연구개발 지원,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li></ul>									

자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 『2019 여성기업 백서』



■ 지자체별로는 시도 11개 지역, 18개 기관에서 공간,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표 7〉 여성창업지원사업 세부내용(지자체)

지역별	여성창업 지원기관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 )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교육, 직업교육강좌, 무료창업상담, 북부마이크로크레딧
	중부여성발전센터	• 여성 창업 및 관련 기술 교육 서비스 제공, 전문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마케팅 지원, 창업 제반 환경 및 시설지원, 창업 -실천까지 종합적 서비스 등 • 창업공간 : 창업부스, 사회경제적 공동사무실 운영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창업플라자 )	• 사업장 및 시설지원, 교육 및 경영지원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	• 전문분야컨설팅, 창업박람회·전시회 등 외부행사 알선 및 참가비 지원,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미나 개최, 자금·용자관련 정보제공 및 안내, 비즈니스 전문교육지원 등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여성창업지원센터 (창업인큐베이팅 ) 운영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울산중부새일센터 )	• 창업보육관 운영, 희망장터 운영, 창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창업 희망여성 40 명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창업컨설팅 (여성소자본창업컨설팅 )
대전광역시	북부여성가족원	• 여성창업지원시설 운영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 창업지원시스템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보육실, 창업준비실),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그린 IT 여성창업 지원사업	• 취·창업 교육 및 개별 컨설팅 /선정시 창업지원금 지원 (그린 IT 여성창업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창업지원센터 )	• 무료 창업상담 실시,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여성회관 인터넷쇼핑몰 실무교육, 창업전문 교육, 테마창업특강, 우수창업사례 탐방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창업 동아리반 운영), 창업 보육실 운영 등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북부 ))	• 센터 창업실 운영 : 창업지원실, 창업준비실 • 여성창업플랫폼 고평마루 운영 : 여성초기 (예비 )창업자, 프리랜서, 발명가, 개발자, 기획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용 사무 공간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남부 ))	• 여성창업플랫폼 운영 : 여성초기 (예비 )창업자, 프리랜서, 발명가, 개발자, 기획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용 사무 공간 • 1 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후 지속성장 지원센터 (POST-BI),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 창업지원실, 공용공간, 교육·컨설팅, 지원정보제공, 홍보·마케팅, 네트워킹 지원 등
경상남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	• 창업교육 이론수업 및 실습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창업정보제공, 창업컨설팅 등
전라남도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 예비창업여성 및 창업 1 년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남 여성창업경진대회
충청북도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교육을 통해 창업컨설팅 및 사업화지원 (기술창업 및 아이디어 창업 등 )

자료: 중기부(2019), 「2019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재구성

##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여성기업법」을 기반으로 '00년부터 시행 중임

- '05년부터 여성창업 지원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지원분야는 공간, 자금, 교육 등이고 최근에는 기술창업, 역량강화 등 여성창업에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음

〈표 8〉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창업지원)

년도	추진전략	추진과제
05	여성 창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체계 혁신</li> <li>• 창업교육 강화, 창업경진대회 개최, 자금지원 확대</li> </ul>
06~07	창업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창업자에 정보지식 제공 확대</li> <li>• 여성특화창업 트레이닝 강화</li> <li>• 창업자에 체계적 사후지원</li> </ul>
08	여성 창업기반의 획기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촉진</li> <li>•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BI) 확대</li> <li>• 상관정보시스템 등 창업 정보제공 강화</li> </ul>
09	여성창업 촉진 및 창업 성공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li> <li>• 여성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실 확대, 1인 여성기업 지원 등</li> <li>• 생계형 여성창업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li> </ul>
10	여성창업 촉진 및 창업 성공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창업보육 모델 발굴 추진</li> <li>• 실전창업교육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업유도</li> <li>• 여성창업지원 인프라 지속 확충</li> <li>•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li> </ul>
11	여성창업 촉진 및 창업 성공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공률 제고</li> <li>• 여성 창업보육 역량 강화</li> <li>• 여성전용 창업자금 확대</li> <li>• 여성기업 멘토링 기능강화 및 경영안정지원</li> <li>•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li> </ul>
12~13	여성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창업보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창업자 맞춤형 지원</li> <li>• 여성 창업보육(BI)실 확대 및 특화</li> <li>•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확대 및 개편</li> </ul>
14~15	여성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창업자 맞춤형 지원</li> <li>• 여성창업보육(BI) 확대 및 지역별 특화센터 운영</li> <li>• 여성 특화 스마트창업터 운영(신규)</li> <li>• 여성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li> </ul>
16	여성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수출 마인드 교육 실시</li> <li>• 여성전문 창업보육센터(BI) 확대 및 지원사업간 연계강화</li> <li>• 밀착지원형 여성스마트창업터 운영</li> <li>• 여성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li> </ul>
17	여성 기술창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지원, 고부가가치 창업지원, 보육지원 개선, 지역센터 활성화</li> </ul>
18	혁신성장지원 여성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등 창업 인프라 확대</li> <li>• 기업가정신·창업 교육,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인력 발굴·육성</li> <li>• 선배 여성창업자 등과와 협업을 통한 여성창업 지원</li> </ul>
19	우수 여성인력 창업·벤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여성 전용(우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li> <li>•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확대 조성 및 홍보 강화</li> <li>•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여성창업 허브로 개편</li> <li>• 기업가정신·창업 교육 등을 통한 우수인력 발굴·육성</li> <li>• 취약계층 여성(여성가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강화</li> </ul>

주: 기본계획은 '05년도부터 공개가 되어 있음

자료: 중기부,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각년도



### 3. 조사결과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기업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창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며,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① 여성기업가적 요소에 대한 심층인터뷰 ② 여성기업 실태조사, ③ 여성창업 실태조사를 분석함

※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같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함

- 여성기업가적 요소에 대한 심층인터뷰(2017)는 업종별 여성창업기업 대상으로 여성기업가 정신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개별 심층인터뷰를 시행한 결과임
- 여성기업 실태조사(2017)는 국가승인통계인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임
  - 본 연구에서는 이중 7년 이내의 창업기업들만을 추출하여 분석함
- 여성창업 실태조사(2019)는 여성창업기업 중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40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임
  - 조사대상 중기부 사업은 '18년, '19년 중기부 통합공고를 통해 제시되어 있는 사업과 여성창업지원사업(여성기업종합보육실 제공)을 포함하여 총 50개 사업으로 함<sup>13)</sup>

#### 1) 심층인터뷰

##### ■ 자료 설명

- 여성창업기업 심층인터뷰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여성기업가정신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시행한 심층인터뷰로 업종별로 창업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 여성기업 5개사의 대표
  - 조사방법: 개별심층면접
  - 조사시기: 2017년 8월 16일 ~ 8월 30일

〈표 9〉 심층면접자 특성

구분		사업장소재지	회사소개
1	A사	서울, 충남	코스닥상장기업, 벤처기업
2	B사	서울, 경북, 체코, 인도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수출기업
3	C사	충북	기술기반기업
4	D사	광주	지식서비스기업
5	E사	서울	창업기업

13) 해당사업은 부록 참조

〈표 10〉 심층면접 5개 기업대표 질의내용

구분	질의내용	
공동질의	창업초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업가정신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기업인들이 가져야 할 기업가정신 성향	
개별질의	A사	기업경영시 창업-성장-위기극복의 과정과 관련된 기업가정신 요소
	B사	제조기업의 창업, 수출, 다변화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과정에서 발현된 기업가정신 요소
	C사	기술설계분야에서 창업 후 여성대표로서 기업 경영시 장단점에 따라 발현된 기업가정신 요소
	D사	지식산업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었을 때 발현된 기업가정신 요소
	E사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기업 대표로서 현재까지 영향을 준 기업가정신 요소

## ■ 인터뷰 결과

- 창업 초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업가정신 성향
  - A사는 ‘경쟁력과 기회포착’, B사는 ‘신뢰’, C사는 ‘경쟁력강화’, D사 ‘정보 및 경험공유’, E사 ‘객관적인 자기성찰 및 비판’이라고 응답함
  - 각 기업들은 기업가정신 대표요소들은 다르게 응답했지만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각 부분들의 필요성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표 11〉 창업 초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업가정신 성향

구분	대표요소	면접 내용
A사	경쟁력 기회포착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미래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준비는 알맞은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을 때 과감히 도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사	신뢰	창업초기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기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라고 생각하며, 특히 기업의 위기시 거래처와의 신용은 물론 직원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뢰를 쌓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C사	경쟁력강화	여성대표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고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른 회사들이 하지 않으려 하는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도전하여 꾸준한 R&D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D사	정보 및 경험 공유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다가온 시점에서 모든 정보는 인터넷상에 공유되기 때문에 창업초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에 대한 정보와 정보를 통한 내·외부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사의 경우 사업자체가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유의 가치에 집중하여 경영을 하고 있다.
E사	객관적인 자기성찰 및 비판	창업가 스스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후 추진력이 약하거나 없다면 결코 제품을 사업화 하는데 첫 발을 내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영을 하면서 객관적인 자기성찰과 비판정신이 없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기업인들이 가져야 할 기업가정신 성향
  - A사는 ‘네트워크 능력’, B사는 ‘리더십’, C사는 ‘동등한 기회추구’, D사는 ‘정보파악능력’과 ‘기술의 변화에 적응’, E사는 ‘섬세한 감수성’과 ‘과감한 도전’이라고 응답함
  - 대표적인 기업가정신성향에 대한 응답으로 여성기업인들은 스스로 부족한 기업가정신을 파악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함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표 12〉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기업인들이 가져야 할 기업가정신 성향

구분	대표요소	면접 내용
A사	네트워크 능력	여성기업인들은 남성기업인들과 비교하여 학연, 지연 등 선후배 간의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이 때문에 정보력이 다소 부족하고, 또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 및 지원을 얻을 기회도 적다. 이러한 여성기업인이 인프라를 키우기 위해 교류기회를 늘린다면 영업부분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기업 대표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문제점을 드러내고 특징과 장점을 살려 주변 기술, 기업 선후배와의 교류를 이어나가 자신과 기업의 한계점을 걸음으로 드러내서 교류하고 해결책을 찾아낸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사	리더십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영의 패러다임 역시 많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강한 힘, 사회적인 인맥을 중요시 여기던 “카리스마 리더십”이 강조된 사회였지만, 현재는 개성, 섬세함, 그리고 사람들과 융화하고 하모니를 갖는 “마더 리더십(Mother Leadership)”이 더욱 극대화 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제는 포용력 있고 더 섬세한 여성들의 성향이 강점이 되고 있는 시대가 왔으며, 전 산업분야에서 남녀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 오히려 우리 여성들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늘 용기를 갖고 성별에 대한 틀을 버리고 진취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이 많이 도전하고 활동 무대를 넓혔으면 좋겠다.
C사	동등한 기회추구	여성기업인으로서 당당하게 업계에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 여성기업인 스스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넘어가고 이해만 바라는 배려를 원하지 말고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기를 바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혜택을 바라보지 않고 제품 품질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대표로서 남자들의 배려를 바라는 여성대표가 아닌 한 회사를 운영하는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당차게 일하는 진정한 기업대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한다.
D사	정보파악능력 기술의 변화에 적응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로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가 전 세계에 공개되고 있다. 또한 근래의 소비자들과 고객은 이미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체재까지 파악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태동으로 인해 기업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인식과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업정보가 더 많이 노출되고 변화하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동종, 동업의 구분을 떠나 정보공개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생존전략 혹은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여성기업가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체의 상생을 위해 어떤 교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사	섬세한 감수성 과감한 도전	여성기업의 경우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성적인 감성의 특성을 바탕으로한 제품이 많다. 절대 남성들이 흉내 내지 못하는 분야이며, 창업을 준비한다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추진력으로 과감한 도전을 하기를 바란다.

● 개별질의는 각 기업대표의 특성 따라 다르게 진행함

- A사는 기업경영시 창업-성장-위기극복의 과정과 관련된 기업가정신요소를 ‘적극적인 의사결정, 실행력, 자금조달 능력’이라고 봄
- B사는 제조기업의 창업, 수출, 다변화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과정에서 발현된 기업가정신 요소로 ‘소통, 리더십, 경영목표설정능력<sup>14)</sup>’을 기업가정신 요소라고 응답함
- C사는 기술설계분야에서 창업 후 여성대표로서 기업 경영시 장단점에 따라 발현된 기업가정신의 요소를 ‘경쟁자와의 동등한 기회추구’라는 견해를 보임
- D사의 경우 지식산업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었을 때 발현된 기업가정신 요소를 ‘혁신, 의사결정, 기회포착의 판단능력’이라고 함
- 창업한지 2년차 E사 대표는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기업 대표로서 현재까지 영향을 준 기업가정신요소에 대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 기술개발’이라는 견해를 보임

14) 경영목표설정능력이란 기업인이 기업경영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말함



〈표 13〉 업종별 기업가정신 요소(개별질의)

구분	기업가정신 요소
A사	적극적인 의사결정, 실행력, 자금조달 능력
B사	소통, 리더십, 경영목표설정능력
C사	경쟁자와의 동등한 기회추구
D사	혁신, 의사결정, 기회포착의 판단능력
E사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 기술개발

## 2) 여성기업 실태조사

### ■ 자료 설명

-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중기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며,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
  - 표본규모 및 최종 유효표본: 전국 4,000개 기업체 / 최종회수 4,526개 기업체
  - 조사내용: 재무, 경영성과, 경영활동,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여성기업 관련 제도, 창업 관련 문항 등
  - 조사시기: 2017년 8월 28일 ~ 10월 20일
- ※ '19년부터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로 이관됨
- 「201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인 4,526개 중 7년 이내인 1,550개사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재분석하여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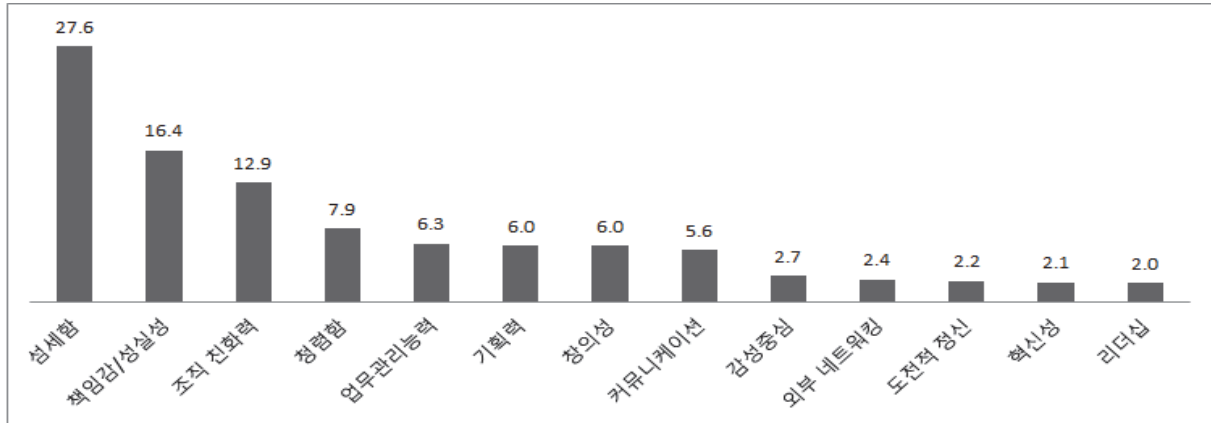
### ■ 여성창업기업의 특성

- 여성창업기업의 강점은 섬세함이며, 경영활동을 하면서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가정양립'으로 나타남
  - 여성기업의 강점요소는 섬세함(27.6%), '책임감/성실성'(16.4%), '조직 친화력'(12.9%)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여성기업의 강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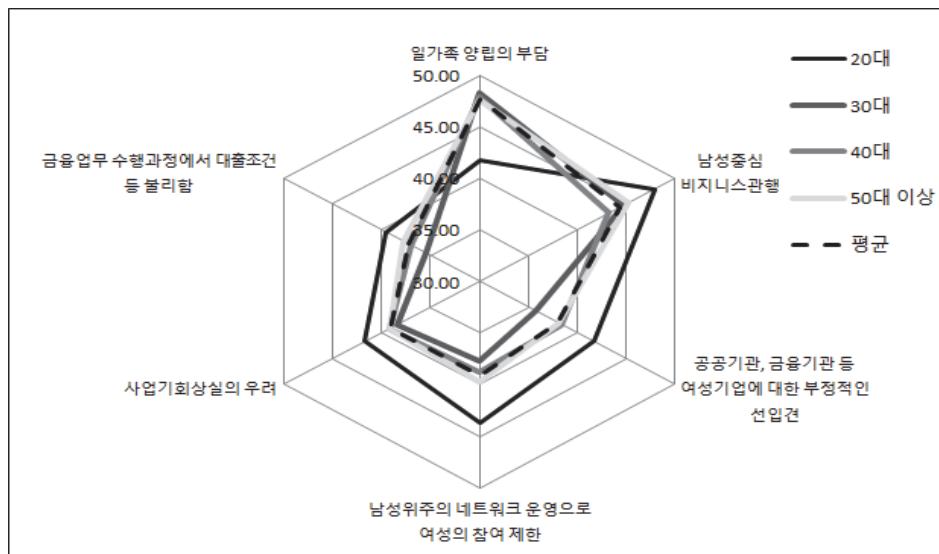


자료: 중기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재계산

- 여성기업으로 가장 불리한 점을 연령대로 살펴본 결과, 30대 이상은 ‘일·가족 양립 부담’가장 높으나, 20대의 경우에는 ‘일·가족 양립 부담(41.67점)’보다는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 제한(43.75점)’이 높게 나타남

[그림 2] 여성기업이 불리한 점

(단위: 점)



자료: 중기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재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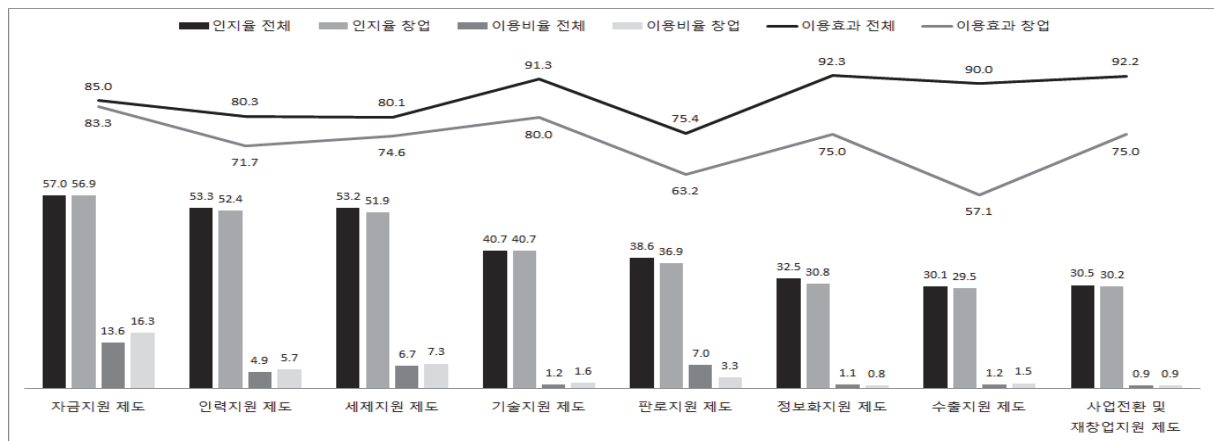
## ■ 정부지원정책

- 창업기업들은 정부지원제도 인지율이 전체기업보다 낮음
  - 분야별로는 자금지원제도를 가장 잘 인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인력지원제도, 세제지원제도 순으로 인지하고 있음

- 이용비율은 판로지원제도, 정보화지원제도,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제도를 제외하고는 전체기업보다 창업기업이 이용비율이 높음
- 이용효과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이 전체기업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함
  - 창업기업은 제도 중 자금지원제도와 기술지원제도가 각각 83.3%, 80.0%가 가장 유용하다고 보았음

[그림 3] 정부지원제도 인지도/이용비율/이용효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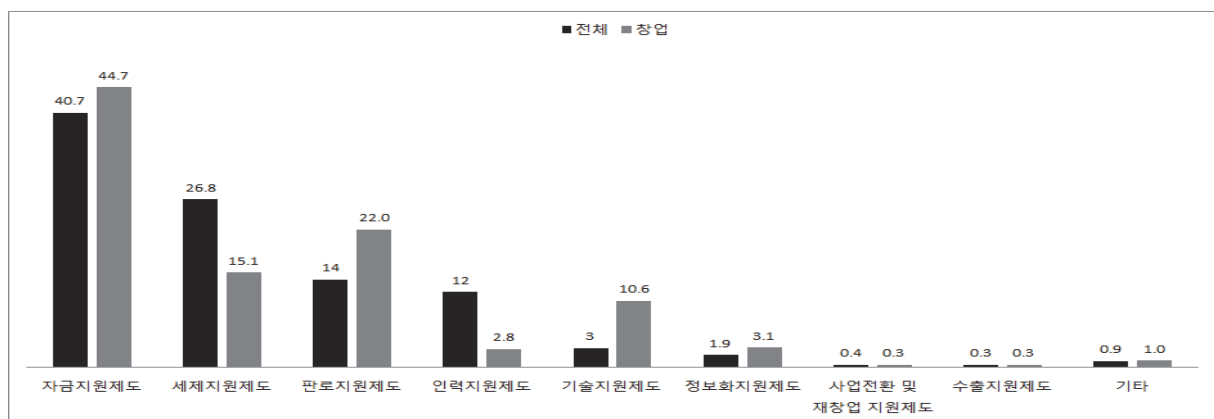


자료: 중기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재계산

-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창업기업들은 자금, 판로, 세제, 기술, 정보화 지원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체기업들은 자금, 세제, 판로, 인력 순으로 상이하였음

[그림 4] 여성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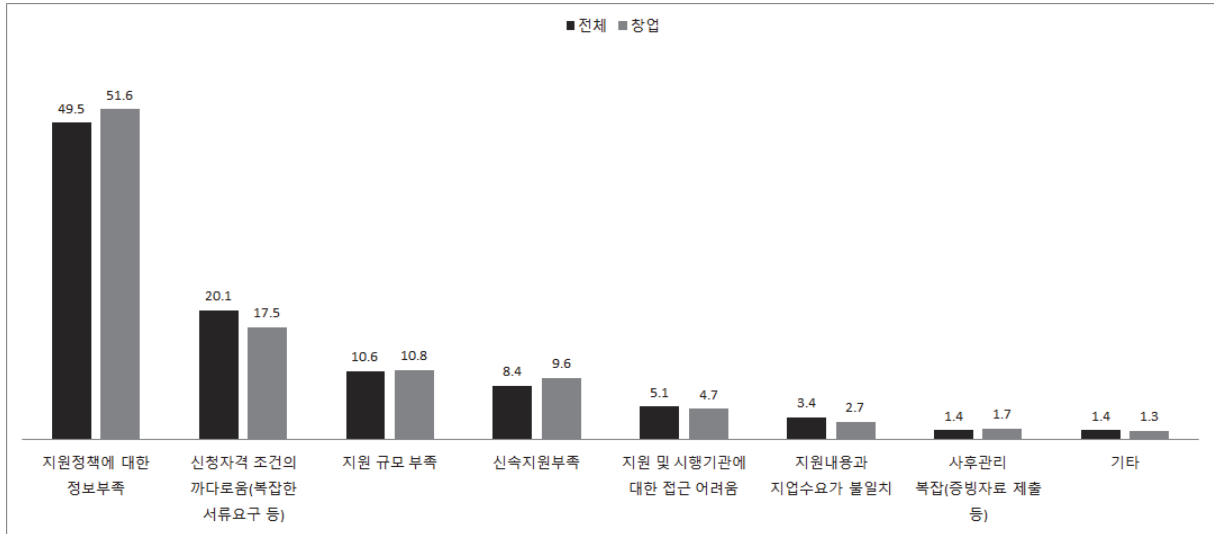
자료: 중기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재계산

- 정부정책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이며, 창업기업들의 경우 51.6%로 전체기업보다 2.1%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5] 여성기업의 정부정책 활용시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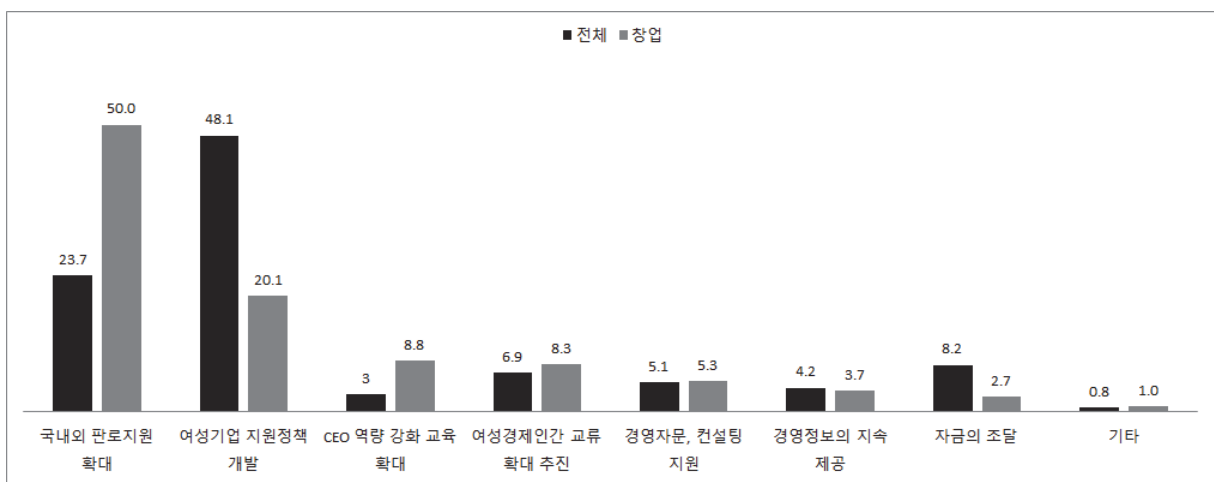


자료: 중기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재계산

-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창업기업은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기업 지원정책 개발’, ‘CEO역량강화 교육 확대’등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체기업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지원정책개발’이 48.1%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국내외 판로지원’, ‘자금조달’, ‘여성경제인간 교류 확대’,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 ‘경영 정보 지속 제공’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

(단위: %)



자료: 중기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재계산

### 3) 여성창업기업 실태조사

#### ■ 자료 설명

- 여성창업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경제연구소의 「여성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표본규모 및 유효표본: 19,791개사 중 유효한 409개사
  - 조사내용: 사업자 일반현황, 개인특성, 여성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특성,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경영성과 등
  - 조사시기: 2019년 10월 23일 ~11월 6일

〈표 14〉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조 사 내 용
기업정보	회사명, 설립년도, 사업장소재지, 종업원수, 업종, 기업형태, 매출액
개인특성	출생년도, 학력수준, 창업 경험, 직장생활 경험, 대표자 자체기술 보유, 창업동기
여성창업가 특성	CEO역량(31문항) ; 조직관리, 전문지식 도전정신, 창의성/혁신성, 리더십/진취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여성창업기업 특성	기업역량(15문항) : 기술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조직역량
정부지원제도	창업지원제도 만족도(24문항) : 사업화 지원제도, R&D(기술개발)지원제도, 창업·교육지원제도, 시설/공간/보육센터 지원제도, 멘토링·컨설팅 지원제도, 행사·네트워크 지원제도
경영성과	경영성과(5문항)
정부지원제도 활용	신청경험, 신청시 애로사항
	활용경험, 활용시 애로사항
	정부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주: 각 특성에 대한 요소 선정에 대한 부분은 김보례·김준길·윤아름·박향기(2019), 「여성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 - 창업기를 중심으로-」참조

#### ■ 일반 현황

- 정부지원사업 중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있는 기업은 318개사임
- 기업 유형을 살펴보면, 벤처기업 89개사, 기술혁신형기업(이노비즈) 3개사, 경영혁신형기업(메인비즈) 4개사, 1인 창조기업 97개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업 171개사, 장애인 확인서 발급기업 4개사, 기타 24개사 등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3개사(3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각각 69개사(16.9%)로 나타남
- '17년과 '18년 매출액은 10억원 미만 기업이 각각 390개사(95.4%), 372개사(91.0%)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04개사(49.9%)로 가장 많고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분포(266개사 65%)가 높게 나타남
- 창업동기는 ‘아이디어 사업화’라고 응답한 기업이 185개사(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계를 위해서’(46개사, 11.2%), ‘사업경영에 흥미를 느껴서’(37개사, 9.0%), ‘연령 및 성별과 무관하게 일하고 싶은 욕구’(36개사, 8.8%), ‘독립성과 자유(시간 및 여유 등)를 위해서’(30개사, 7.3%) 등으로 나타남

〈표 15〉 응답기업의 일반현황

(단위: 개, %)

구분		기업수	비율
전체	정부지원사업 신청경험 기업	409	100.0
중기부 사업 신청 경험	있다	318	77.8
	없다	91	22.2
기업유형 (중복응답)	벤처기업	89	21.8
	기술혁신형기업(이노비즈)	3	0.7
	경영혁신형기업(메인비즈)	4	1.0
	1인 창조기업	97	23.7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171	41.8
	장애인 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4	1.0
	기타	24	5.9
업종	농업, 임업, 어업	1	0.2
	제조업	163	39.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2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	0.5
	건설업	19	4.6
	도매 및 소매업	69	16.9
	숙박 및 음식점업	2	0.5
	정보통신업	37	9.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9	16.9
	기타	46	11.2
20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390	95.4
	10억원 이상~	12	2.9
2018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372	91.0
	10억원 이상~	22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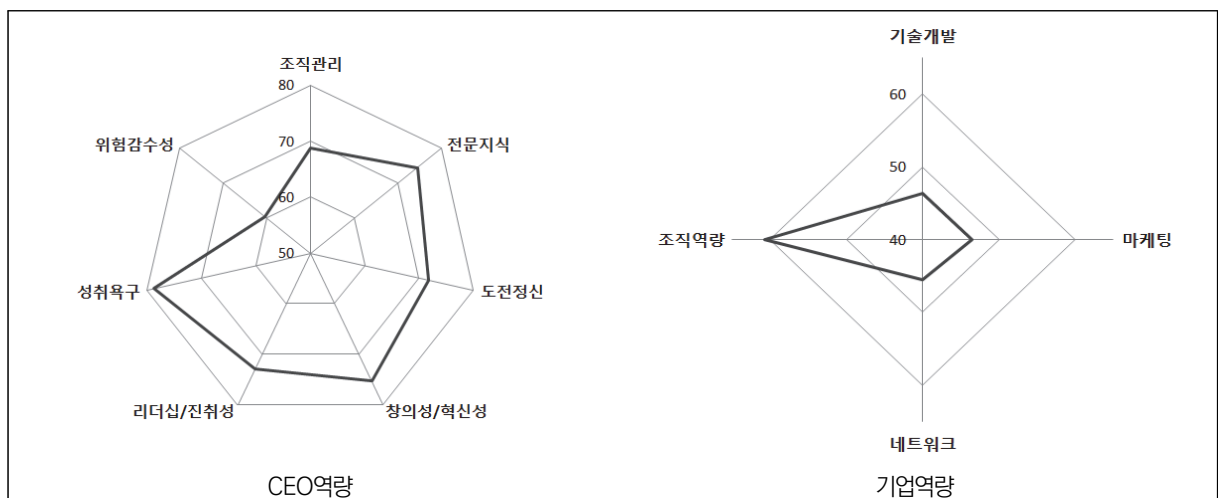
구분		기업수	비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	0.2
	고등학교 졸업	42	10.3
	전문대학교 졸업	52	12.7
	대학교 졸업	204	49.9
	대학원 졸업(석사)	75	18.3
	대학원 졸업(박사)	35	8.6
자체기술 보유여부	있다	266	65.0
	없다	143	35.0
동기	아이디어 사업화	185	45.2
	생계를 위해서	46	11.2
	기업승계를 위해서	8	2.0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병행을 위해서	22	5.4
	사회적 지위와 높은 소득을 위해서	24	5.9
	연령 및 성별과 무관하게 일하고 싶은 욕구	36	8.8
	독립성과 자유(시간 및 여유 등)를 위해서	30	7.3
	취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10	2.4
	사업경영의 흥미를 느껴서	37	9.0
	기타	11	2.7

## ■ 지원사업 신청/활용 유무에 따른 여성 기업가적 특성

- CEO역량면에서 여성창업기업은 성취욕구가 가장 높고, 위험감수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역량면에서는 조직역량이 기술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7] 여성창업기업 특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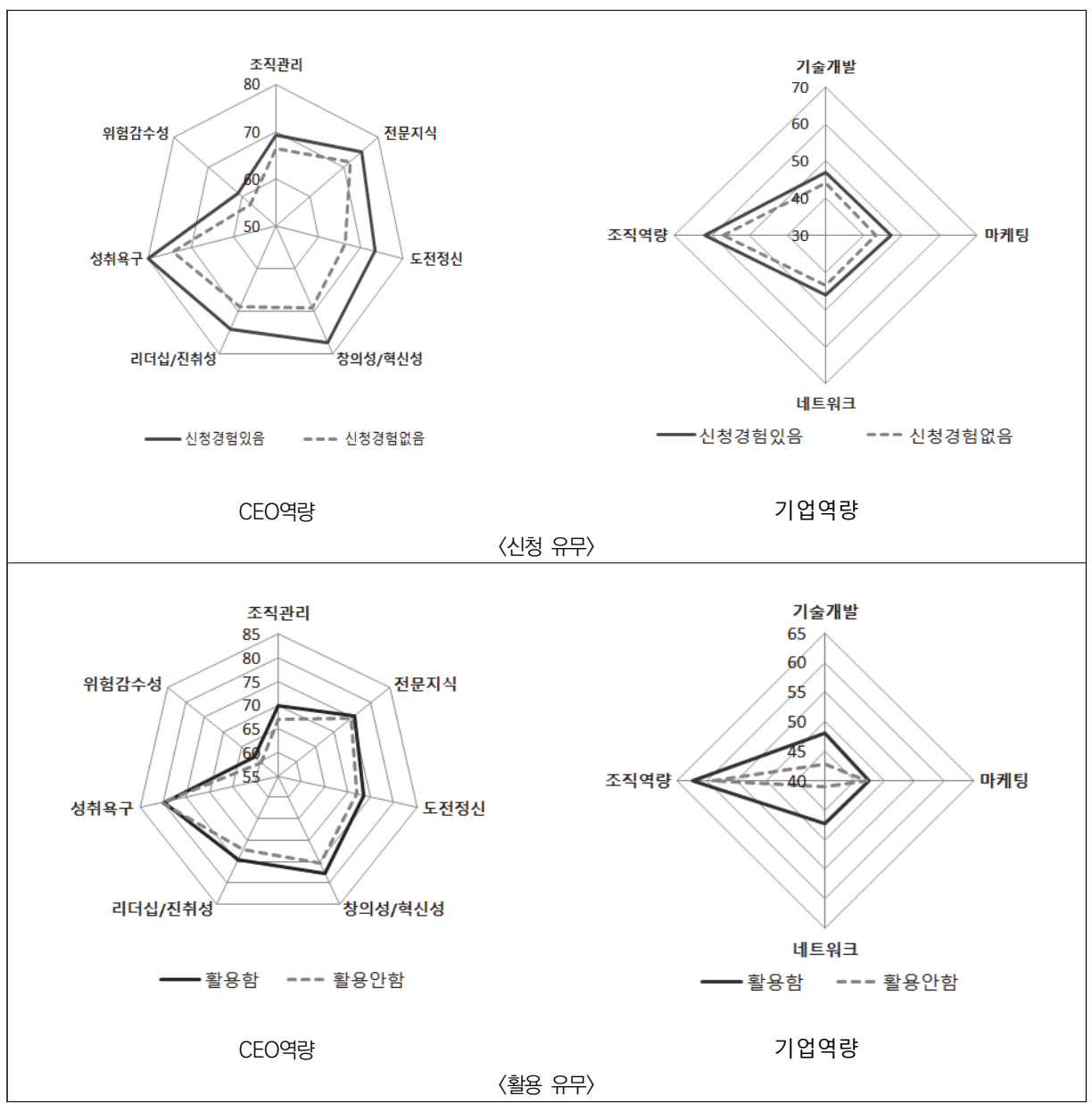




- 중기부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이 신청한 경험이 없는 여성기업보다 CEO역량 및 기업역량 모두 전 요소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원사업에 신청 후 활용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지원사업을 활용한 기업이 못한 기업보다 CEO역량 및 기업역량 요소에서 대부분 높게 나타남
  - 단, CEO역량에서 성취욕구는 지원사업을 활용 못한 기업이 지원사업을 활용한 기업보다 0.4점 높게 나타남

[그림 8] 정부지원사업 신청/활용 유무별 여성창업기업 특성

(단위: 점)





## ■ 중기부 지원사업별 신청/활용

-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318개 기업의 분야별 지원사업 신청 경험을 살펴보면 ‘사업화’가 245개사(77.0%), ‘시설/공간/보육’이 124개사(39.0%), ‘행사·네트워크’가 90개사(28.3%), ‘R&D’가 84개사(26.4%), ‘멘토링·컨설팅’이 64개사(20.1%), ‘창업·교육’이 40개사(12.6%)로 나타남
- 신청한 지원사업 중 활용한 사업은 ‘사업화’가 165개사(51.9%)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R&D’가 44개사(13.8%), ‘창업·교육’이 22개사(6.9%), ‘시설/공간/보육’이 88개사(27.7%), ‘멘토링·컨설팅’이 50개사(15.7%), ‘행사·네트워크’가 24개사(7.5%) 순으로 나타남
- 신청한 경험이 있는 318개 중 활용까지 한 기업은 253개로 지원사업을 신청 후 활용한 기업 비중이 79.6%로 높은 편임<sup>15)</sup>
  - ※ 활용률 = 활용기업수/신청기업수×100
  - 지원사업 분야별 활용률이 높은 분야는 ‘멘토링·컨설팅(78.1%)’이고 세부 사업 중에는 ‘멘토링 역량강화 지원(84.8%)’임
  - (사업화)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가 52.1%로 활용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50%)’,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42.9%)’, ‘창업도약패키지(41.2%)’ 순으로 나타남
  - (R&D) ‘창업성장기술개발’이 54.3%의 활용률을 보임
  - (창업·교육) ‘실전창업교육’이 11개사 지원하여 2개사 활용하여 18.2%의 활용률을 보임
  - (시설/공간/보육) ‘창업보육센터(창업보육협회)’가 75.0%로 시설/공간/보육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활용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 순으로 나타남
  - (멘토링·컨설팅) ‘멘토링 역량강화 지원’이 33개사 지원하여 28개사가 수혜를 받아 84.8%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이 77.3%로 나타남
  - (행사·네트워크) 사업분야 중 가장 낮은 활용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30%, ‘여성창업경진대회(26.4%)’, ‘대한민국 창업리그(4.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15) 사업별로 살펴보면, 신청 기업수가 적은 경우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10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살펴봄



〈표 16〉 중기부 지원사업 별 신청/활용 경험(중복응답)

(단위: 개, %)

분야	사업명	신청		활용		활용률 (B/A)
		기업수(A)	비율	기업수(B)	비율	
전체		318	100.0	253	100.0	79.6
사업화	창업도약패키지	68	21.4	28	11.1	41.2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14	4.4	6	2.4	42.9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6	1.9	3	1.2	50.0
	상생서포터즈 사내 창업 프로그램	2	0.6	0	0.0	0.0
	스마트 벤처캠퍼스	8	2.5	6	2.4	75.0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8	2.5	4	1.6	50.0
	창업선도대학 육성	40	12.6	16	6.3	40.0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48	15.1	25	9.9	52.1
	‘18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26	8.2	13	5.1	50.0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1	0.3	1	0.4	100.0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	4	1.3	2	0.8	50.0
	재도전 성공패키지	20	6.3	11	4.3	55.0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7	2.2	2	0.8	28.6
	초기창업패키지	75	23.6	30	11.9	40.0
	예비창업패키지	49	15.4	30	11.9	61.2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20	6.3	12	4.7	60.0
	포스트 틱스(TIPS)	3	0.9	0	0.0	0.0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1	0.3	0	0.0	0.0
	소계	245	77.0	165	51.9	67.3
	R&D	창업성장기술개발	81	25.5	44	17.4
재도전 기술개발		3	0.9	0	0.0	0.0
소계		84	26.4	44	13.8	52.4
창업 교육	청소년 비즈쿨	1	0.3	0	0.0	0.0
	대학기업가센터	5	1.6	2	0.8	40.0
	창업대학원	4	1.3	3	1.2	75.0
	메이커문화 확산	8	2.5	5	2.0	62.5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2	0.6	1	0.4	50.0
	스마트 창작터	9	2.8	4	1.6	44.4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교육	0	0.0	0	0.0	신청한 기업 없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7	2.2	5	2.0	71.4
	실천창업교육	11	3.5	2	0.8	18.2
	소계	40	12.6	22	6.9	55.0

분야	사업명	신청		활용		활용률 (B/A)
		기업수(A)	비율	기업수(B)	비율	
시설/ 공간/ 보육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3	0.9	0	0.0	0.0
	창업보육센터((사)창업보육협회)	28	8.8	21	8.3	75.0
	여성창업보육센터((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49	15.4	31	12.3	63.3
	시제품 제작터 운영	8	2.5	2	0.8	25.0
	시니어기술창업센터	7	2.2	4	1.6	57.1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	2	0.6	2	0.8	100.0
	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2	0.6	0	0.0	0.0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3	0.9	2	0.8	66.7
	스타트업 파크	2	0.6	0	0.0	0.0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1인 창조기업활성화)	51	16.0	35	13.8	68.6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8	2.5	5	2.0	62.5
	소셜벤처 육성	5	1.6	3	1.2	60.0
	<b>소계</b>	<b>124</b>	<b>39.0</b>	<b>88</b>	<b>27.7</b>	<b>71.0</b>
멘토링 · 컨설팅	아이디어 사업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9	2.8	2	0.8	22.2
	멘토링역량강화 지원	33	10.4	28	11.1	84.8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22	6.9	17	6.7	77.3
	'19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9	2.8	5	2.0	55.6
	<b>소계</b>	<b>64</b>	<b>20.1</b>	<b>50</b>	<b>15.7</b>	<b>78.1</b>
행사 · 네트워크	벤처 창업 페스티벌	3	0.9	0	0.0	0.0
	대한민국 창업리그	21	6.6	1	0.4	4.8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1	0.3	1	0.4	100.0
	여성창업경진대회	72	22.6	19	7.5	26.4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10	3.1	3	1.2	30.0
	<b>소계</b>	<b>90</b>	<b>28.3</b>	<b>24</b>	<b>7.5</b>	<b>26.7</b>

## ■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 전체 응답 기업 중 91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47개사(5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지원절차나 방법이 까다로워서'가 22개사(24.2%), '지원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서'가 11개사(12.1%),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6개사(6.6%) 순임

〈표 17〉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 %)

구분	기업수	비율
전체	91	100.0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6	6.6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47	51.6
지원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서	11	12.1
지원 절차나 방법이 까다로워서	22	24.2
기타	5	5.5



## ■ 중기부 지원사업별 신청/활용 시 애로사항

-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임
  - 사업화 분야에서는 ‘신청서류 작성이 어려움(문서작성의 애로)’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R&D분야는 ‘신청서류가 복잡함(서류단계가 많음)’이 26.2%가 가장 애로가 크다고 응답함
  -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에서는 모두 ‘지원내용과 기업수요가 불일치’가 각각 30.0%, 19.4%, 29.7%, 35.6%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함

〈표 18〉 중기부 지원사업 별 신청 시 애로사항

(단위: 개, %)

구분	사업화		R&D		창업·교육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체	245	100	84	100	40	100
신청 시 자격요건이 까다로움	30	12.2	10	11.9	3	7.5
신청서류가 복잡함 (서류단계가 많음)	45	18.4	22	26.2	7	17.5
신청서류 작성이 어려움 (문서작성의 애로)	52	21.2	19	22.6	5	12.5
지원내용과 기업수요가 불일치	40	16.3	15	17.9	12	30.0
과도한 서류제출 및 중복서류 제출	46	18.8	6	7.1	5	12.5
기타	16	6.5	6	7.1	3	7.5
없음	16	6.5	6	7.1	5	12.5
구분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체	124	100	64	100	90	100
신청 시 자격요건이 까다로움	21	16.9	2	3.1	3	3.3
신청서류가 복잡함 (서류단계가 많음)	19	15.3	11	17.2	11	12.2
신청서류 작성이 어려움 (문서작성의 애로)	9	7.3	9	14.1	7	7.8
지원내용과 기업수요가 불일치	24	19.4	19	29.7	32	35.6
과도한 서류제출 및 중복서류 제출	17	13.7	6	9.4	11	12.2
기타	10	8.1	5	7.8	7	7.8
없음	24	19.4	12	18.8	19	21.1

- 중기부 지원사업 활용 시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사업화, R&D,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행사·네트워크에서는 ‘이용 후 실제 지원혜택이나 금액이 기업수요에 비해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함

〈표 19〉 중기부 지원사업별 활용 시 애로사항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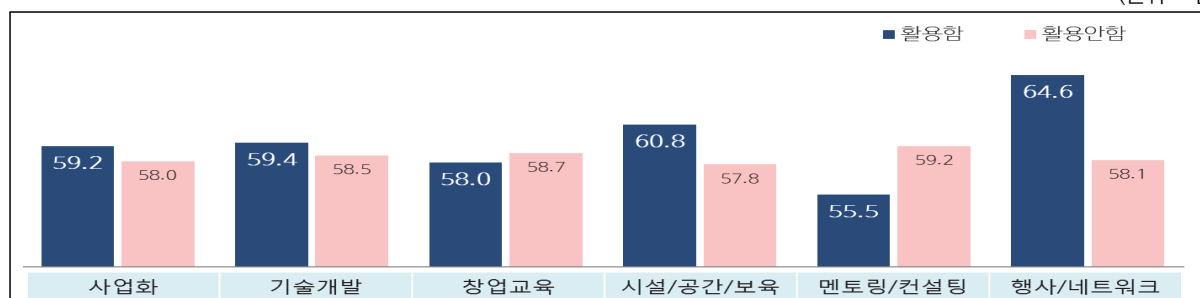
구분	사업화		R&D		창업·교육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체	165	100	44	100	22	100
지원 후 사업수행 시 요구하는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26	15.8	9	20.5	0	0.0
컨설팅 등 지원사업 선정 후 추가조치가 많음	11	6.7	2	4.5	2	9.1
지원사업 종료 후 기관에서 추가관리가 부족함	23	13.9	5	11.4	2	9.1
이용 후 실제 지원혜택이나 금액이 기업수요에 비해 부족	36	21.8	14	31.8	6	27.3
지원내용과 기업수요가 불일치	9	5.5	0	0.0	2	9.1
사후관리 복잡(이용 후 지원제도 효과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16	9.7	8	18.2	2	9.1
과도한 서류제출 및 중복서류 제출	16	9.7	3	6.8	3	13.6
기타	6	3.6	0	0.0	1	4.5
없음	22	13.3	3	6.8	4	18.2
구분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전체	88	100	50	100	24	100
지원 후 사업수행 시 요구하는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2	2.3	6	12.0	0	0.0
컨설팅 등 지원사업 선정 후 추가조치가 많음	6	6.8	1	2.0	0	0.0
지원사업 종료 후 기관에서 추가관리가 부족함	15	17.0	9	18.0	0	0.0
이용 후 실제 지원혜택이나 금액이 기업수요에 비해 부족	20	22.7	9	18.0	7	29.2
지원내용과 기업수요가 불일치	8	9.1	9	18.0	6	25
사후관리 복잡(이용 후 지원제도 효과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4	4.5	3	6.0	1	4.2
과도한 서류제출 및 중복서류 제출	7	8.0	3	6.0	4	16.7
기타	5	5.7	4	8.0	3	12.5
없음	21	23.9	6	12.0	3	12.5

## ■ 지원사업 분야별 활용 유무(有無) 창업여성기업의 경영성과

- 창업교육과 멘토링·컨설팅 분야의 지원사업을 활용한 여성기업을 제외하고는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남
  - 특히,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의 경우 경영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시설/공간/보육, 기술개발, 사업화 순으로 지원사업 활용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남

[그림 9] 지원사업 분야별 활용 유무(有無) 경영성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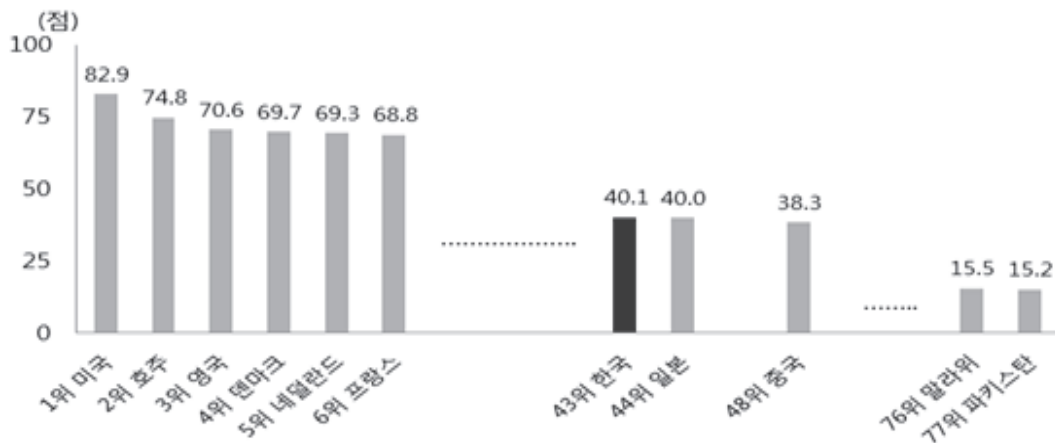
## 4. 한계점 및 개선방안

### 1) 한계점

#### ■ 여성창업지원에 대한 특화성 및 여성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 부족

- 「여성기업법」 상의 여성기업 지원의 목적은 여성 기업가적 성향을 고려하는 부분보다는 경제활동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여성은 정부지원에서 수혜비율이 남성보다 낮고 여성기업 지원사업은 일반 사업과 지원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기업가정신은 77개국 중 43위로 낮은 수준으로 여성 기업가정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시행하는 기업가정신실태조사를 살펴봐도 여성은 남성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그림 10] 국가별 여성기업정신 지수 순위(2015년 기준)



자료: GEDI(2015), 'Female Entrepreneurship Index'

〈표 20〉 성별 기업가정신 현황(2018년 기준)

(단위: 점)

구분	기업가적 특성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
여성	44.95	45.52	46.57
남성	46.13	46.60	46.85

주: 기업가적특성(혁신성, 위험감수성, 시장선도성, 자율성, 경쟁추구성, 성취욕구), 기업가적 역량(인지역량, 대인관계 역량, 사업화 역량), 기업가적태도와 인식(대응방식, 글로벌마인드, 공익실현, 개인적인식, 사회적 인식)

자료: 중기부-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8), 「2018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p.64.

## ■ 여성창업지원 예산이 낮은 수준이고 다양한 지원이 부족함

- 여성창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예산 수준이 낮다는 한계점을 가짐
  -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창업지원예산은 '19년 41.75억원에서 '20년 58.75억원으로 절대적인 액수는 늘었으나, 정부의 창업·벤처 예산(안) 대비 비중은 전년대비 0.1%p 낮은 0.3% 수준임
-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 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함
  - 일반 창업지원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방법은 우대지원(가점)<sup>16)</sup> 형태가 대부분이며, 해당 사업은 현재 1개뿐임
  - 여성창업지원의 경우에도 공간, 자금,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 ■ 지원사업 수 과도화 및 지원기관 다양성

- '20년 현재 창업에 대한 지원은 16개 부처 42개 전담기관에서 90개 사업을 시행 중임
  - 창업·벤처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조에 힘입어 지원사업 수는 더 늘어나고 있음
  - 창업가들이 지원할 때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 통합공고를 통해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나, 신청을 받는 기관이 다르고, 유사한 지원내용인데 수혜 수준이 상이하여 지원하는 창업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있음

## ■ 지원사업 신청/활용 시 문제점

- 지원사업의 지원 혜택과 기업의 수요와 불일치
  - 지원사업을 활용한 기업들은 사업 분야에 상관없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실제 지원 혜택이나 금액이 기업 수요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함
  - 정부 지원사업은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아, 사업 진행 시 제한적이며, 교육, 멘토링·컨설팅, 네트워크 등은 어떠한 업체와 사람이 배정되는지에 따라 지원 효과의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음
- 정부지원사업 수혜 기간에 맞춰 폐·창업을 반복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음
  -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하려고 창업한 진성 기업들이 혜택받을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제시함<sup>17)</sup>

16) 중소기업 정책자금(창업기업지원자금 한도 10억원), 기보·신보 보증지원(창업초기기업 보증료율 0.1%p 감면), 창업성장기술개발(가점 1점), 청년창업사관학교(가점 0.5점),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가점 1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시 BI입주 가점 5점)

17) 여성창업기업 인터뷰(2019.11)



- 여성창업가들의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느낌
  - 정부지원사업을 왜 신청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음
  - 이는 여성 창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나, 여성들이 남성보다 네트워크가 취약하여 기본적으로 정보 취득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

## 2) 개선방안

### ■ 여성창업자의 역량 강화 및 기업가정신 교육 필요

-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창업기업들의 경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로 'CEO역량 강화 교육'을 들었음
- 여성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재)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지난해 AMP교육 시 여성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행하였음
  - 여성기업가가 기업가정신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업가정신 핵심요소별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표 21〉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에 따른 개인차원의 기업가정신 핵심요소별 비교

(단위: 점)

구분		개인 전체	도전정신	창조성/혁신성	리더십 자기주도성	가치지향
개인 차원	교육경험(有) 기업인①	72.73	69.78	74.11	73.55	74.28
	교육경험(無) 기업인②	68.39	64.07	70.52	70.38	69.80
	GAP(①-②)	+4.34	+5.71	+3.59	+3.17	+4.48
조직 차원	교육경험(有) 기업인①	69.10	64.00	71.47	73.37	69.34
	교육경험(無) 기업인②	65.38	59.11	67.94	69.69	66.98
	GAP(①-②)	+3.72	+4.89	+3.53	+3.68	+2.36

자료: 김보례·윤아름(2017), 「여성기업가정신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여성기업가 정신 교육은 교육대상 측면에서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필요하며, 교육을 1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표 22〉 독일의 Enterprise 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와 색스니안힐트(Saxony-Anhalt) 연방 주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7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제도이다. 다음의 4단계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비즈니스 창업을 할 수 있는 소액 금융융자를 포함한다.

- 1단계(오리엔테이션 및 프로파일링): 창업의 기회와 위험, 창업준비와 관련된 지원창구, 창업에 필요한 역량 등을 예비 창업자에게 안내하는 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이 장기적인 직원 경로로서 인식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 2단계(기획 및 훈련): 예비창업자가 전문적인 컨설턴트와 비즈니스 코치들의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세미나와 워크숍의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 3단계(비즈니스 시작):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창업자가 창업과정 동안 성공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도 전문적인 컨설턴트와 코치의 지원이 포함된다.
- 4단계(성장 및 강화): 참가자들이 비즈니스를 개업한 후 동 프로젝트는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한다. 특별 세미나와 네트워킹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4단계의 프로그램이 완료되고 나면 5,000유로까지 소자본 융자가 제공되기도 한다.

자료: 김문희,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THE HRD REVIEW(글로벌 리포트)』, 2016년 05월, pp.104-123.

## ■ 여성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필요

- 여성들의 위험감수성이 낮고 성취욕구는 높으나, 정보 접근성의 취약하므로 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이용관련 교육을 업력별, 업종별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여성기업은 지원사업 정보를 인터넷, 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지원사업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지원사업이 무엇이고, 어떠한 사업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예를 들어, 교육대상은 초기에는 ① 예비창업자, ② 창업자(3년 이내) ③ 창업자(3년~7년 이내)로 구분하며, 수요자가 많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내용은 ① 지원사업 소개, ② 실무교육(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 준비에서 신청까지)을 기본틀로 함
- 여성창업가들은 조직역량을 제외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능력이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강화 등의 지원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함
  - 여성창업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중에 자금, 판로를 제외하고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음<sup>18)</sup>
  - 단, 현재 시행되고 이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멘토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편차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여성창업지원사업은 여성기업 관련 협단체의 선배 여성기업 POOL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간담회 및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8) 여성창업기업 인터뷰(2019.11)



## ■ 지원체계 개편 필요

- 여성창업지원사업의 예산 규모 확대가 필요함
  - 공간 제공과 상금지원 뿐 아니라, 교육, 멘토링 서비스,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나, 현재에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임
    - ※ 중기부의 「창업기업동향」을 살펴보면, 여성창업 기업이 '18년 기준으로 632,073개사인데, 현재 여성창업 보육실(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기준)은 226개로 전체 여성창업기업의 0.04%로 수요자 대비 부족함<sup>19)</sup>
- 일반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에 대한 우대 지원사업 수를 확대하여 여성창업자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 창업지원사업 중 여성 수혜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업(예를 들어 수혜비율이 10%대 인 사업)에 여성창업자가 지원하는 경우 우대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부처별로 지원사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함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업지원사업은 42개 전담기관에서 수행 중이므로 창업기업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업 지원 시의 애로사항 등 문의를 받는 창구를 부처별로 1개로 통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지원사업 신청/활용 시 실효성 제고

-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기업의 필요에 의한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산정하고 있음
  - 많은 기업을 적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수 기업에게 필요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러한 요구들로 인하여 정부는 최근 패키지 지원 등을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한 기업들은 수혜수준이 적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단, 기업별로 필요한 지원의 정도와 수준이 상이하고 성장가능한 기업인지에 대한 측정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적정 지원규모를 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창업 후 지원사업을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창업 후 기업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폐업 후 재창업 즉 재기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하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기간에 맞춰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사를 나가는 등의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함

19) 여성창업자를 전체 수요자로 보았을 때 단순비교한 수치이므로 정확한 분석 시에는 이보다 적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음

## 참고문헌

- 권순만,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덕목, 기업가정신」, 『시사저널』 1582호(2020-02-08).
- 김문희,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THE HRD REVIEW(글로벌 리포트)』, 2016년 05월, pp.104-123.
- 김보레·김준길·윤아름·박향기(2019), 「여성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 - 창업기를 중심으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김보레·윤아름(2017), 「여성기업가정신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여성기업대표들을 중심으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대한민국정부(2019), 「2019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 문숙재·최자경(2001), 「여성창업기업의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5권 제1호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 『2019 여성기업 백서』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보도자료,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 ... 역대 최고 1,147팀 참가」, 2019년 11월 29일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각년도.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호(2019.1.3.),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호(2020.1.2.), 「2020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8),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8), 「2018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9.8.29.), 「‘세계 최장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편성 - 중소기업부 2020년 예산안」.
- 지상철·황보운(2018), 「여성창업자의 창업성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2018. Apr. 27, pp. 127-130.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특허청, 「세입·세출 예산 개요」, 각년도.
- GEDI(2015), ‘Female Entrepreneurship Index’
- Library of the European Parliament(2013), 「Women’s Entrepreneurship in the EU」.
- Maria Minniti(2010), 「Female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Activity」,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Volume 22, 3, pp.294-312



- N. Maniyalath(2016). 「The human development index predicts female entrepreneurship r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ume 22, No.5, pp.745-766
- OECD(2019),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19”, p. 285.
- S. Roland Xavier(2012), 「Women Entrepreneurs: Making A Change from Employment to Small and Medium Business Ownership」,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Volume 4, pp.321-334

## 부록

### ■ 여성창업 실태조사 시 고려한 중기부 사업

분야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사업화	1) 창업도약패키지	시설/ 공간/ 보육	30)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2)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31) 창업보육센터((사)창업보육협회)
	3)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32) 여성창업보육센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4) 상생서포터즈 사내 창업 프로그램		33) 시제품 제작터 운영
	5) 스마트 벤처캠퍼스		34) 시니어기술창업센터
	6)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35)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
	7) 창업선도대학 육성		36) 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8)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37)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9) '18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38) 스타트업 파크
	10)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39)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1인 창조기업활성화)
	11)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		4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12) 재도전 성공패키지		41) 소셜벤처 육성
	13)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멘토링 · 컨설팅	42) 아이디어 사업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14) 초기창업패키지		43) 멘토링역량강화 지원
	15) 예비창업패키지		44)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16)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45) '19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17) 포스트 틱스(TIPS)		
	18)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R&D	19) 창업성장기술개발	행사 · 네트 워크	46) 벤처 창업 페스티벌
	20) 재도전 기술개발		47) 대한민국 창업리그
창업 교육	21) 청소년 비즈쿨		48)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22) 대학기업가센터		49) 여성창업경진대회
	23) 창업대학원		50)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24) 메이커 문화 확산		
	25)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26) 스마트 창작터		
	27)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교육)		
	28)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9) 실천창업교육		

# 2019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 여성 기업가정신 생태계 리뷰



(065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202호(서초동, 브이알빌딩)  
전화: (02) 2156-2280 | 팩스: (02) 2156-2290